

I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and I no longer live,
but Christ lives in me. (Galatians 2:20)

2016. 01

충현의 만나

Manna of Choonghyun

매일묵상 Q.T. 사무엘상
구역모임 소그룹 성경공부 (G.B.S.)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I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and I no longer live,
but Christ lives in me.(Galatians 2:20)

충현의 만나

Contents

- 2 1월 일정표
- 4 매일묵상 사용안내
- 6 기도제목표
- 7 매일묵상 Q.T.
- 71 구역모임 · 소그룹 성경공부(G.B.S.)
- 89 본문말씀

「충현의 만나」는 충현교회가 매달 발간하는 Q.T. 교재입니다.

01

2016 January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2교구 신년감사예배(1, 2부)	2 전교인
3 전교인 제1차 성찬식	4 전교인	5 13교구	6 8교구	7 17교구	8 6교구 교회일꾼 영성훈련 및 직무훈련	9 전교인
10 전교인	11 전교인	12 10교구	13 3교구	14 11교구	15 4교구	16 전교인
17 전교인	18 전교인	19 15교구	20 7교구	21 14교구	22 5교구	23 전교인
24 전교인	25 전교인	26 18교구	27 9교구	28 16교구	29 12교구	30 전교인
31 전교인 선교주일						

교회 주요 일정

1월 1일

신년감사예배(1, 2부)

1월 3일

제1차 성찬식

1월 8~9일

교회일꾼 영성훈련 및 직무훈련

1월 31일

선교주일

1월, 개인 전도 계획

‘충현의 만나’는 충현의 모든 성도들이 영의 양식인 성경을 매일 묵상하도록 매달 발행되는 Q.T.(Quiet Time) 소책자이다. ‘충현의 만나’는 독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중심으로 일정 분량의 본문을 볼 수 있도록 편집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실제 생활에 적용하도록 만들어졌다. 새벽기도회의 본문을 기준으로 ‘본문 해설’과 ‘묵상 질문’, ‘적용 질문’의 형태로 구성된 ‘충현의 만나’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 묵상하는 방법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우선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신에게 다음의 두 가지 기본적인 질문을 해보자.

1. 첫째, 본문이 무엇을 말하는가?

제목을 정하라

우선 본문을 읽은 후, 본문이 말하는 주제를 선명하게 포착하기 위해 그 내용을 요약해야 한다. 각 문단의 핵심단어나 구절을 찾아 표시하고 본문의 핵심을 보여주는 단어를 중심으로 제목을 만들거나, 주제를 한 문장으로 다시 표현해 보면 본문이 말하는 바를 더 잘 알 수 있다. 충현의 만나 매일묵상은 2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좌측 상단의 날

짜 옆에 본문의 전체 주제가 될 만한 구절을 뽑아 제목으로 달아 놓았다. 본문을 관찰하는 사람에 따라서 이 제목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만일 묵상하는 중에 본문의 주제를 더 적확(的確)하게 표현하는 말이 있다면 스스로 제목을 만들어 빈칸에 적어보는 것도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좋은 훈련이 된다.

본문의 배경을 살피라

본문을 쓴 인간 저자는 어떤 사람인지, 언제, 어디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누구에게, 무엇 때문에, 왜 기록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이런 정보는 성경 본문 안에서 주어질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성경 각 권의 개요를 설명한 책이나, 성경 사전, 혹은 도서관에서 주석을 참고하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단,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는 피하는 게 좋다. 많은 사이버, 이단들이 자신들의 블로그 등에 이단 교리를 올리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단이 아니라 할지라도 개혁신의 신학과 맞지 않는 해설을 퍼 나르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본문의 의미를 구체화 하라(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명확하게 밝히라)

본문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와 내용을 어느 정도 파악했다면, 이제는 본문의 내용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 본문의 뜻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 보면 도움이 된다.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나타나셨는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등장인물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인가?
 우리가 순종해야 할 명령은 무엇인가?
 우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따라가야 하는가?
 우리가 피하고 경계해야 할 죄는 무엇인가?

2. 둘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주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실제 생활에 적용하라)

말씀을 묵상한 뒤, 우리는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온전히 순종하는 반응이 있어야 한다. 다음의 몇 가지 방법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자신의 무가치함을 인정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만을 의지하라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자백하고 회개하라

세상의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버리고 옛 생각에서 돌이키라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라
 내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고, 내가 잘못된 사람이 용서를 구하라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살피고,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라
 가까운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의 진리를 전하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루를 시작하거나 혹은 잠자리에 들기 전에 말씀으로 점감한다면, 주님의 은혜를 더 분명하게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인간적인 노력으로 해 보려 한다면 실패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더욱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이 우리의 심령에 깊이 채워지도록 기도하면서 성령 하나님만 의지하여, 매일 말씀을 묵상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는 그들로 마음에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골 2:2~3).

- ① **충현교회가 오직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든든히 세워지고, 복음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 ② **김동하 담임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사 십자가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모든 교역자들과 중직자(장로, 안수집사, 권사)들이 십자가만 붙들게 하소서.**
- ③ **충현교회에 주신 5대 목표가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이루어지는 은혜를 베푸소서.**
- ④ **십자가 보혈로 풍성한 신령한 예배를 위하여 미리 준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총을 베푸소서.**
- ⑤ **충현의 교회학교 학생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온전히 깨달아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천국일꾼이 되게 하소서.**
- ⑥ **모든 교구와 부서, 각 위원회가 십자가의 생명으로 충만하여 복음으로 부흥하게 하소서.**
- ⑦ **1년 1인 1명 전도와 교회 주변 전도 및 해당 교구 전도와 동역 교회 전도 지원을 통하여 민족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 ⑧ **복음의 오지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해외 단기선교에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으로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가 되게 하소서.**
- ⑨ **충현교회의 재단들(유지·동산·복지)이 복음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시고, 가평·함양농원 개발이 은혜 중에 진행되게 하소서.**
- ⑩ **국가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국가의 어려움과 위기를 잘 극복하게 하시고, 남북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5월 10일 목요일 특 권

성경의 말씀과 생활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

매일 묵상

매일 묵상

매일 묵상

매일묵상

Q.T.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후서 3:15)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본문 사무엘상 14:1~15 찬송가 360장

» 본문 해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사울 왕과 이스라엘이 막강한 군사력으로 밀어붙이는 블레셋과의 전투 속에서 무기력하기 짝이 없는 모습을 보일 때,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 단독으로 출전하여 블레셋 진영을 공격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가나안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던 블레셋은 신생독립국인 사울의 왕국이 자리를 잡기 전에 그 기초를 흔들기 위해 전쟁을 벌여왔습니다. 제대로 된 무기 하나 없는 이스라엘은 그들의 도발에 무기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때 요나단은 자기의 병기 든 자와 함께 블레셋 진영을 향하여 아버지 사울에게 알리지 않고 단독으로 출전을 결의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1~5절). 그리고 요나단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 가운데 용기를 내어 블레셋을 공격할 계획을 자신의 병기 든 자와 함께 세우는 것을 기록하였습니다(6~10절). 11~15절은 요나단이 자신의 병기 든 자와 더불어 블레셋 군을 공격하여 이십여 명을 죽이고 블레셋 진영을 혼란에 빠뜨림으로써 이스라엘 군이 승리할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고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의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볼 수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불리한 전투였기에 이스라엘의 왕 사울은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인 요나단은 6절에서 '여호와와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으니라'라는 믿음의 고백을 남기고 전장에 뛰어들었습니다. 비록 그가 거둔 성과는 외견상으로 볼 때는 약 20명을 쳐 죽인 그리 큰 것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믿음의 헌신이 온 블레셋의 진영과 백성과 땅이 두려움과 공포로 떨게 만드는 큰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행위가 처음에는 작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믿음의 행위는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큰 떨림을 행사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여부입니다.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기도 제목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주변의 상황이나 환경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이 두려워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소서.

그 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므로

본문 사무엘상 14:16~23 찬송가 384장

》》 본문 해설

사무엘상 14장 1~15절 말씀에서 요나단은 자신의 병기 든 소년과 단 둘이 블레셋을 공격하여 승리의 교두보를 마련하였습니다. 16~23절 말씀은 베냐민 기브아에 있던 이스라엘의 파수꾼이 블레셋이 극도의 혼란 상태에 빠졌음을 파악하였고,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전장으로 나아가 큰 승리를 거두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블레셋을 향하여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싸움터에 나갔을 때 그들이 싸워서 이겼다고 보다는 블레셋 사람들이 극도로 달한 두려움 때문에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를 치는 혼란으로 인한 *자중지란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20절). 이러한 모습은 사사기의 기드온이 3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미디안을 대항해 싸울 때를 연상시킵니다(삿 7:22). 결국 하나님이 차려놓은 승리의 밥상에 에브라임 산지에 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까지 전쟁에 참여하여 뽐아원을 지나기까지 승리를 거두는 역사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3절에서도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므로' 라고 언급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이 한 것은 단지 전쟁에 참여한 것 밖에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 땅에 극도의 공포심을 불러 일으키셨고, 블레셋 사람들로 하여금 서로가 서로를 찌르는 자중지란이 일어나게 하셨고 승리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이 세상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과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람을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 자중지란(自中之亂) : 같은 편끼리 하는 싸움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기도 제목

여호와와의 구원하심을 믿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가
게 하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본문 사무엘상 14:24~35 찬송가 400장

>>> 본문 해설

블레셋과의 전쟁 때,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저녁이 되기 전까지 어떠한 음식도 먹어서는 안 된다고 맹세시켰습니다(24절). 싸움이 숲 속으로 이어지면서 병사들은 땅에서 꿀을 발견했는데, 이것은 재빨리 후퇴하는 블레셋 사람들이 흔들여 놓은 벌집에서 나왔을 것입니다. 병사들은 맹세를 두려워하여 꿀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26절).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의 맹세를 듣지 못했으므로 지팡이 꿀을 벌집에 넣어 거기에 묻은 꿀을 맛보았습니다. 그 즉시 요나단의 원기가 회복하여 눈이 밝아졌습니다(27절).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에게 공혈함이 부족한 것이 블레셋 사람을 더 많이 살육하는 것에 방해가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30절). 사울의 어리석은 맹세는 더 커다란 비극을 초래했습니다. 그 맹세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피를 먹게 함으로써 인약의 정결 음식 규정을 어기고 죄를 범하게 만들었으며, 자기 장자의 목숨을 잃을 뻔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어리석은 맹세 때문에 백성들은 더욱 더 피곤하였습니다.

사울은 전쟁 중에 백성이 금식하면 여호와와 은혜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사울이 노린 것은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24절)”라는 사울의 말은 일인칭 대명사가 세 번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맹세는 하나님의 명이나 이스라엘의 국가적 안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사울은 자기 군사들이 싸움터에서 힘을 내기 위해서 필요한 음식을 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사울의 자기중심적인 리더십 스타일에는 인약의 리더에게 요구되는 공혈이 빠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로 자기 중심적인 리더십에서 벗어나 공혈의 마음을 가진 참된 리더십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기도 제목

하나님을 향한 바른 열심을 가지고 주의 말씀에 따라 합당하게 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

본문 사무엘상 14:36~52 찬송가 310장

>>> 본문 해설

이스라엘 백성이 음식을 먹고 휴식을 취한 후 사울은 블레셋을 야간 기습 공격하고자 했습니다(36절). 백성들은 기꺼이 따랐지만, 제사장은 사울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것을 권했습니다. 사울은 그날 아무 대답도 하나님으로부터 듣지 못했습니다(37절). 사울은 군대의 모든 지도자들을 한 곳에 불러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고 했습니다(38절). 제비뽑기를 통하여 죄인을 결정하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제비는 뽑혔고, 결국 요나단이 뽑혔습니다(42절). 사울은 요나단에게 무슨 일을 했는지 설명하라고 명령했습니다(43절). 요나단은 자기는 다만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그의 행동은 최소한의 것이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그는 맹세에 대해 알지 못한 채 그 일을 행했습니다. 그런데도 사울은 요나단이 반드시 죽으리라고 맹세를 했습니다(44절). 복수하려는 감정에 복받친 사울의 어리석음은 이제 자기 아들마저 죽음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군부의 지도자들은 그날 요나단이 보여준 영웅적인 행동을 기억했습니다. 요나단은 죽지 않으리라는 맹세는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으로 요나단이 행한 일의 참된 능력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45절) ‘구원하다’로 번역된 용어는 문자적으로 ‘속량하다’를 의미합니다. 백성들은 요나단을 구해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인간 왕의 의지와 신적인 왕의 의지의 대결입니다. 인간 왕들은 저주와 맹세를 말할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 그들은 그것을 성취할 능력이 부족합니다. 요나단의 믿음으로 충만한 행동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여호와와 목적에 반하는 두 대적을 물리친 것입니다. 하나님 외부의 적인 블레셋이고, 다른 하나는 내부의 적인 잘못된 이스라엘 왕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바르게 알고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기도 제목

주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행하며 바른 길을 가게 하시고 연약한 자를 도우며 세우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본문 사무엘상 15:1~9 찬송가 149장

>>> 본문 해설

사무엘은 여호와와의 말씀을 가지고 사울에게 왔습니다. 그것은 모세 시대에 일어난 아말렉의 배신에 대한 예언 즉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 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닛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출 17:14~16)는 말씀을 성취할 순간이 된 것입니다. 여호와와의 명령은 간단했습니다.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지기 말고 진멸하라”(3절)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은 여호와와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군대를 소집하여 아말렉 사람들을 공격하는 가운데, 아말렉 왕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겼습니다(9절). 이스라엘 백성은 약하고 천한 것은 멸망시키고 가장 좋은 것은 남겨 두었습니다.

거룩한 전쟁에서 성 전체의 사람과 소유물은 하나님께 구별되거나 헌납되고 멸망시켜야 했습니다. 사울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명령은 직접적이고 직접적이었습니다.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멸망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좋은 것은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았습니다. 가치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 임무에 순종함으로써 언약의 지도자 직분을 보여줄 기회를 얻었지만 안타깝게도 불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하나님께 버림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기도 제목

우리에게 성령의 총명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죄의 유혹을 이기고 주의 말씀에 따라 온전히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본문 사무엘상 15:10~23 찬송가 364장

» 본문 해설

여호와와 사무엘에게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11절). 사울의 행동은 사무엘을 근심하게 했습니다. 그는 밤새 기도하고 아침 일찍 사울을 찾아갔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는 자신이 여호와와 명령을 행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13절). 사무엘은 사울에게 자기 귀에 들리는 소리는 무엇인지 물어보았습니다. 사울은 마치 자기가 무리들을 말리 수 없었던 것처럼 백성들에게 책임을 돌리려 했습니다. 더 나아가 사울은 그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사무엘의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 남겼다고 주장했습니다(15절). 사무엘은 그 변명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었습니다. 언약의 지도자인 사울은 그 민족을 여호와와 지시와 명령에 따르도록 이끌어야 했습니다. 사무엘은 유창한 시어를 통하여 사울의 왕의 직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하고 주의하는 것이 언제나 수양의 기름보다 더 낫습니다. ‘거역하는 것’이라고 번역된 용어는 자신의 입장을 주장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 순간 자기 행동을 정당화하고 변명하려는 사울의 시도를 언급했습니다. 사무엘은 이 행동을 점치는 행동과 비교했습니다. 점술은 신을 기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예고함으로써 신을 조종하려고 기도하는 행위입니다. 사울은 자신이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완고한 것으로 번역된 용어는 누군가 일정한 행동들을 고집할 때 사용됩니다. 사무엘은 *사신(巫觋)이라는 구체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드라빔에게 음식과 예물을 드리는 일은 신을 조종하여 요청한 것을 이루거나 축복을 받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이 이방신을 섬기는 이들과 마찬가지로 아말렉의 가족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여호와를 조종하려고 했다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신(邪神) : 재앙을 내린다고 하는 요새스러운 귀신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기도 제목

주님의 마음을 가져 세상의 헛된 것들을 버리고 우리 마음 중심으로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본문 사무엘상 15:24~35 찬송가 449장

》》 본문 해설

사울은 마침내 자신이 범죄했다고, 자신이 여호와와 사무엘의 지시를 어겼다고 시인했습니다. 사울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대신 백성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사울은 용서를 구했으나 사무엘은 무심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이 진정으로 회개했다고 느끼지 않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사울은 다시 겉으로 드러난 자신의 모습을 걱정했습니다. 그는 백성들이 모든 것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사울이 행하지 못한 그것을 사무엘은 이행했습니다. 그들이 돌아왔을 때 사울은 이말렉 왕 아각을 불러왔습니다. 아각은 이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나갔다고, 즉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를 죽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그에게 심판의 예언을 선언하고 여호와가 명하신 대로 그를 사형에 처했습니다. 이를 후에 사무엘은 라마로 떠났습니다. 두 사람은 사무엘이 죽기 전까지 만나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은 계속해서 사울을 위해 애곡했고, 여호와는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했습니다.

사무엘이 떠나려고 몸을 돌렸을 때 사울은 사무엘의 겹옷자락을 붙잡았고 그것이 찢어졌습니다. 사무엘은 이것을 여호와가 이스라엘 나라를 그에게서 떼어내셨다는 증표로 사용했습니다(27절).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그 생각을 바꾸시지 않을 것입니다. 사울은 왕이 되는 것을 거절당했습니다. 이런 변화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겉모습만 생각했습니다. 그는 자기 입장만 구하여 사무엘에게 장로들 앞에서 자기를 높이고 자기와 함께 돌아갈 것을 호소했습니다. 사무엘은 마지못해 그에 동의했습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짐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기도 제목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분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짐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 여호와와 중심을 보느니라

본문 사무엘상 16:1~13 찬송가 261장

» 본문 해설

사무엘은 뿔에 기름을 채워 베들레헴으로 가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새의 아들 가운데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왕이 되도록 예언하셨습니다. 사무엘은 여호와가 명하신 대로 행했습니다. 그가 베들레헴에 도착하자 장로들이 떨며 그를 맞이했습니다. 사무엘은 그들에게 자기가 평강을 위하여 왔다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에게 스스로 성결케 하여 여호와께 제사 드릴 준비를 하도록 명했습니다. 사무엘은 또한 이새와 그 아들들을 성결케 하고 제사를 청했습니다. 그들이 제사에 참석했을 때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새 왕, 즉 여호와와 마음에 맞는 사람에게 기름 부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새는 자기 아들들을 하나씩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누구도 올바른 마음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은 이새에게 네 아들이 다 여기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한 명이 남아 있는데, 그는 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양을 지키고 있던 다윗을,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 중심을 보시고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지 못했고 중대한 실수를 범했습니다. 사무엘은 오직 겉모습만 보았던 것입니다. 사무엘의 실수는 신실한 지도자는 반드시 올바른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을 깨우쳐 줍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똑같은 방식으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겉모습에 좌우되고 종종 변덕스럽기까지 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볼 수 있는 것, 즉 외모로 판단합니다. 히브리 본문은 문자적으로 사람은 눈을 본다고 말합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의 생각과 감정과 의도를 볼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런 것들을 판단할 능력을 갖고 계시는데, 그것은 여호와께서는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종들이 올바른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보혈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여 마음 중심에 바른 자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기도 제목

주의 십자가 보혈 앞에 나아가 우리의 추한 죄악을 용서받으며 중심이 바른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본문 사무엘상 16:14~23 찬송가 533장

》》 본문 해설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사용해 사울을 섬겼습니다. 비록 다윗은 왕으로 기름부음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그는 자기 재능을 다른 사람을 섬기는데 사용하기로 선택했습니다. 사울을 모시는 신하들은 사울이 빠져 있는 진퇴양난의 상황을 인식했습니다. 그들은 심령의 고통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음악이 갖고 있는 진정시키는 기능을 사용할 것을 추천했습니다. 사울을 섬기는 이들 가운데 한 명이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의 어린 아들이 사울을 훌륭히 섬길 수 있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 시종은 다윗을 수금을 탈 줄 아는 사람으로 묘사했습니다. 사울은 사람을 보내 이새의 허락을 받고 다윗을 데려왔습니다. 이새가 준비한 음식은 사울에게 주는 선물이거나 다윗이 갈 가는 동안 먹을 음식이었습니다. 다윗은 도착한 뒤 사울 앞에 모셔 섰습니다(21절). 오래 지나지 않아 사울은 그를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결국 자기의 병기 든 자로 삼았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새에게 다윗이 계속해서 자기를 모셔 서게 하도록 청했습니다.

수금은 '리라' 즉 공명 상자 위에 두 개의 지지대가 달린 현악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윗은 수금을 잘 탈 줄 알 뿐만 아니라 호기와 무용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준수하고 구변도 좋았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다고 말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핵심 진술은 사울의 왕국 안에 상황이 변하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여호와와는 다윗과 함께 계셨지만 사울과 함께 계시지 않았습니다. 결국 다윗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므로 점점 더 강성하여져 갑니다. 그러나 사울은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지 않으므로 점점 더 쇠락해져 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이 함께 하시는 자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늘 살아야 할 것입니다.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기도 제목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 거두지 마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아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본문 사무엘상 17:1~11 찬송가 358장

》》 본문 해설

가나안의 남서쪽에 위치한 소고와 아세가 지역에서 이스라엘은 블레셋군과 대치하고 있었습니다(1절). 즉 블레셋에서 이스라엘로 들어오는 관문에서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블레셋은 사사 시대 때부터 이스라엘을 지속적으로 괴롭혀 온 민족이었습니다. 당시 블레셋 진영에는 골리앗이 있었습니다. 골리앗의 신체적 여건은 키가 약 3m에 육박했고, 그가 입고 있던 갑옷도 약 60kg이나 될 정도로 이스라엘 군사들로 하여금 주눅이 들게 했습니다(4~5절). 이 외적인 모습 때문에 사울을 비롯한 이스라엘은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일찍이 사울이 이스라엘 왕으로 추대될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큰 키와 준수한 사울의 외모를 보고 왕으로서 흠족해 했습니다. 하지만 본문에 드러난 사울의 모습은 골리앗의 외모 앞에 주눅이 들어 공포감에 사로잡혀 있는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전쟁은 겉으로는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이지만, 누가 진정한 왕처럼 행동하는가에 대한 대결이었습니다. 육중한 골리앗은 매일 이스라엘 진영을 향해 시비를 걸어왔습니다(7절). 즉 자신을 대적할 수 있는 자가 있으면 용기 있게 나와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나는 블레셋 군의 대장이고, 너희는 사울의 노예에 불과하다”(8절)면서 신분의 차이를 바탕으로 이스라엘을 비방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왕을 세웠지만 블레셋의 한 명의 군인 앞에서 벌벌 떠는 왕의 모습은 비참하기 짝이 없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왕인 하나님을 거부하고 인간 왕을 세운 이스라엘 백성의 초라한 모습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한 결과를 지금 이스라엘은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기도 제목

나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거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본문 사무엘상 17:12~27 찬송가 360장

>>> 본문 해설

골리앗은 40일 동안 전장에 나와 이스라엘을 조롱했습니다. 사울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군사에게 큰 포상을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군대의 사기는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24~25절). 이들 중에는 이새의 세 명의 아들 엘리압, 아비나답, 삼마도 있었습니다(13절). 이새는 사울에게 충성스러운 사람이었기에 그의 세 아들을 전쟁터로 보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여덟째 아들인 다윗은 나이가 어렸기에 전쟁에는 나가지 않았지만, 군대에 파병되어 있는 형들과 집을 왕래하면서 음식과 소식을 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다윗은 형들에게 식량을 전달하기 위해 전쟁터를 찾아가했습니다. 이곳에서 적장 골리앗이 등장하면 도망하기 바쁜 이스라엘 군대의 모습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도망치는 이스라엘 군대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믿음, 즉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적장 골리앗 한 사람으로 인해 혼비백산하는 모습이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비록 나이는 어렸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모습은 형들보다, 사울보다 더 나았습니다. 사실 이 전쟁은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곧 누가 더 이스라엘 왕으로 적합한가라는 사울과 다윗의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고 살아 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그대로 둘 수 없었습니다(26절).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신자는 이 사실을 삶에서 믿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지 않는 우둔하고 어리석은 모습뿐입니다.

»» 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기도 제목

나의 삶의 순간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지하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본문 사무엘상 17:28~40 찬송가 382장

>>> 본문 해설

골리앗을 비난하는 다윗에 대한 소식이 사울에게도 들렸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만나보기를 원했고, 전장에서 차기 이스라엘 왕과 만나게 되었습니다(31절). 다윗은 사울에게 자신이 직접 골리앗을 물리치겠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다윗의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골리앗은 전쟁의 경험이 많은 자이지만, 다윗은 어리고 전쟁의 경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33절). 그러나 다윗은 전쟁은 많은 경험과 무기로 하는 것이 아닌, 지금까지 자신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과 함께라면,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34~37절). 그는 아직 징집의 대상이 되는 20세가 안 된 소년이었지만(민 1:3; 26:2), 들판에서 양을 칠 때에 사자와 곰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던 자였기에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가리켜, “살아계시는 하나님”으로 고백했습니다(26, 36절). 이 전장에서 사울은 물론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전쟁을 주관하시고 승리를 가져다 주실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이미 다윗은 영적으로 전쟁에서 승리했고, 사울보다 더 적합한 이스라엘 왕으로 그의 모습을 드러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분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다윗은 이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왕인 사울은 이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누구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입니까?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기도 제목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의지하는 신앙의 모습을 보이게 하옵소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본문 사무엘상 17:41~54 찬송가 301장

>>> 본문 해설

다윗의 모습을 본 골리앗은 당황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어리고 외모 또한 고왔기 때문이었습니다(42절). 골리앗의 입장에서는 지난 40일 동안 이스라엘이 준비한 자가 다윗이라는 사실과 창과 칼이 아닌 막대기를 들고 나온 모습 앞에서 모멸감을 느꼈을 것입니다(43절). 하지만 골리앗은 진정한 다윗의 무기를 보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께 이름을 무기 삼아 그 앞으로 나온 것입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께 이름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45~47절)는 다윗의 이 고백은 이미 전쟁의 결과가 결정되었음을 드러내 주었습니다. 그의 고백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군대를 친히 지키실 것이며, 그 명예도 보존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앙고백을 담아 골리앗에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단 번에 승리했습니다. 골리앗은 칼 한 번 휘둘러보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수만 명의 이스라엘 군대를 무려 40일간 공포에 떨게 했던 골리앗이 시체가 된 순간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 자의 비참한 최후를 대변합니다. 하지만 다윗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한 결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승리를 또 다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로 구원과 부활의 영광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승리의 기쁨을 삶에서 인정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다면, 과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기도 제목

오늘의 삶에서도 승리하신 주님을 의지하면서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그를 자기 생명 같이 사랑하나라

본문 사무엘상 17:55~18:5 찬송가 86장

》》 본문 해설

다윗의 승리로 블레셋 군대는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그들에게 또 다시 과거 다곤 신전에서 여호와와 악몽이 기억 속에 되살아났습니다. 이스라엘 신 여호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도망가는 그들을 이스라엘 군대는 뒤쫓아 제거했습니다(53절). 이처럼 다윗은 골리앗을 죽이기 전까지는 무명의 소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우뚝 섰습니다. 사울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실질적으로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으로 자리매김하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돌아오자 요나단이 그를 반겨주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신의 생명처럼 여기며 자신의 최고의 선물들을 주었습니다. 겹옷, 군복, 칼, 활, 띠 등 이것들을 다윗에게 선물함으로써 그는 차기 왕권에 관심이 없음을 밝혔습니다. 그가 다윗에게 선물한 물건들은 곧 왕권을 넘겨주는 상징적인 행위였습니다(4절). 일찍이 요나단도 블레셋을 물리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도 역시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여 전쟁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을 겸비한 다윗을 보자마자 그는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언약까지도 맺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3절). 하나님을 의지하고, 삶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삶의 어려운 순간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야 한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얼마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지 스스로 점검해야 합니다.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기도 제목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구하고 의지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그 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본문 사무엘상 18:6~16 찬송가 350장

» 본문 해설

다윗과 사울이 블레셋을 물리치고 이스라엘로 입성했습니다. 이때 부녀자들이 그들을 환영하며 노래를 지어 불렀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로다”(7절). 하지만 이 노래는 사울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순간부터 사울은 다윗을 증오하게 되었고,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은 강렬한 감정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이 노래의 핵심은 지금의 왕인 사울보다 다윗이 10배 이상의 용사라는 의미였습니다. 즉 사울보다 다윗의 통치가 10배 이상 더 성공적일 것이라는 예언적인 노래였습니다. 이 노래는 좋은 의도로 불렀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다윗은 사울에게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도망자의 신세가 되는 그 단서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위협 속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주변의 상황이 그를 위협 가운데로 몰아넣은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상황이 오히려 나를 곤란과 곤경에 빠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도 하나님의 계획과 간섭이라는 사실을 고백한다면, 때에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기도 제목

주님의 뜻 안에서 내가 다듬어지고, 주님의 거룩한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간구하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시므로

본문 사무엘상 18:17~30 찬송가 304장

》》 본문 해설

하나님의 은혜가 날로 임하는 다윗과는 달리, 사울은 날마다 악령에 싸였습니다. 더군다나 다윗의 인기는 날로 더해가고 있어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는 생각만 가득했습니다. 다윗의 공덕을 찬양하는 개선가가 울려 퍼진 날부터 사울은 다윗을 극도로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존감이 낮았던 사울은 다윗을 제거하려는 음모만 머릿속으로 꾸몄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위하여 수금을 탔지만 별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은 두 번씩이나 창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이때부터 사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서 떠나 다윗에게 임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12절). 그래서 다윗을 두려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사울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다윗을 왕궁에서 내보내기 위해 천부장으로 삼았습니다. 그가 이렇게 한 이유는 다윗이 전쟁터에서 죽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만’을 죽인 다윗에게 천부장이라는 계급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천부장으로서 지혜롭게 이스라엘 백성을 재판하고 어울려 더 큰 인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즉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 것입니다(롬 8:28).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간섭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지금의 상황이 힘들고 낙심되는 상황이라도, 하나님은 나의 인생과 여건을 통해 더 선한 것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 믿음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되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하는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입니다.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기도 제목

하나님이 내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날마다 주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인내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다윗을 죽이라

본문 사무엘상 19:1~7 찬송가 342장

» 본문 해설

사울은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공개적으로 명령했습니다(1절). 처음에는 내면에 시기와 질투에서 시작된 것이 이제는 노골적이고 공개적인 범죄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죄는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양심을 무디게 만들고 나중에는 부끄러움과 수치를 느끼지 못하도록 만들어서 결국 공개적으로 행하며, 또한 주변의 사람들도 동참하도록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의 말을 듣고 다윗에게 위협을 경고하고 은밀한 곳에 숨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2~3절).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진정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사랑은 어려울 때 발휘됩니다. 평소에는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도 어려움에 처할 때 외면하며 떠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다윗이 왕의 미움을 받았고, 다윗 편에 서는 것 자체가 왕을 불쾌하게 만든다는 것을 알면서도 다윗을 신실하게 도와주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왕 앞에 나아가서 다윗을 위하여 변호하였습니다. 다윗이 아무 잘못이 없는데 어찌하여 죽이려 하는지 의문을 던지면 담대히 사울 앞에서 다윗을 변호하였습니다(4~5절). 요나단은 정치적인 이해득실이나 혈연관계를 염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눈으로 사건을 진단하고, 진리의 편에 섰습니다. 우리는 사회의 일뿐만 아니라 교회의 일을 하면서도 정치적인 관계나 혈연관계에 얽매어 사리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그릇 행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진리를 볼 수 있는 눈과 진리의 편에 설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사울은 요나단의 말을 듣고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를 했습니다(6절). 그러나 그 맹세는 곧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이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죄는 우리의 결연한 의지나 맹세로 억제되지 못합니다. 오직 주의 은총과 도우심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우리는 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바라보면,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죄를 이겨야 합니다. 우리의 힘과 결단으로 이길 수 없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해야 합니다.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기도 제목

늘 진리의 편에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 아래서 죄를 이기게 하소서.

다윗을 잡으려 하매

본문 사무엘상 19:8~24 찬송가 70장

》》 본문 해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또 승리하게 됩니다(8절). 다윗이 승승장구 할수록 사울은 더욱 시기심을 느끼게 되었고, 이전에 맹세와는 달리 또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이 수금을 탈 때에 단창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9~10절). 하나님의 대적 블레셋을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순간에도 사울은 기쁨에 동참하지 못하고 오히려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되었던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처럼 시기와 질투심을 우리의 눈을 멀게 하며, 심각한 죄악으로 우리를 이끌고 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형제가 일을 지혜롭게 잘 하고 뛰어나면 시기하고 질투하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사울의 자리에 있습니다.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할 때입니다.

사울은 전령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죽이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아내 미갈이 이 사실을 알고 다윗을 창을 통해 달아내려 도망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11~12절). 또한 다윗이 아파서 누운 것처럼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놓고 염소의 털로 꾸며서 다윗이 도피할 수 있도록 시간을 끌어주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지혜롭게 돕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윗을 놓친 사울은 멈추지 않고 끝까지 다윗을 찾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와 함께 나뭇에 있음을 듣고 그를 잡아 죽이려고 전령을 세 번이나 보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전령들로 하여금 예언하게 하심으로 그들은 다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18~21절). 사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들었지만 본인이 다윗을 직접 잡아 죽이려고 찾아 나섭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하나님은 사울에게 역사하여 옷을 벗은 몸으로 누워서 밤낮 예언하게 만들었습니다(22~24절). 하나님께서 다윗의 악한 의도를 막으시고, 사람들도 하여금 사울의 수치와 허물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그 어떤 자도 우리를 해하지 못합니다.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기도 제목

환란 중에 피난처와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소서.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 뿐이라

본문 사무엘상 20:1~11 찬송가 337장

» 본문 해설

다윗은 라마 나옏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을 만났습니다. 다윗은 어찌하여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지 답답한 자신의 심정을 요나단에게 토로했습니다(1절). 요나단은 아버지가 자신에게는 모든 일에 대해서 알려주기 때문에 자신이 미리 위험을 알려주고 보호해주겠다고 위로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안심하지 못했습니다. 요나단이 신실하지만, 사울의 마음을 변하게 할 수 없고 사울을 막아내지 못함을 인식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과 죽음 사이는 한 걸음 뿐이라고 고백했습니다(3절). 용맹한 장군이었던 다윗은 끈질긴 죽음의 위협 앞에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하고 무기력한 인생임을 늘 인식해야 합니다. 실로 우리와 죽음 사이의 간격이 멀지 않음을 늘 깨달아야 합니다.

다윗은 내일 초하루에 왕과 함께 하는 식사 자리에 가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왕이 자신의 안부를 물을 때 가족과 매년제를 지내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갔음을 전해달라고 요나단에게 요청합니다. 그 때 사울이 다윗에게 노하고 죽이려고 한다면 그를 향한 사울의 의도가 분명하기 때문에 알려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의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했고 그의 말을 따랐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대하였지만 다윗은 끝까지 지키지는 못했습니다. 요나단 자신의 한계와 어려움을 인식하고 다윗의 말을 그대로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실한 동역자와 조력자들은 붙여주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우리를 궁극적으로 보호하지는 못합니다. 인간의 한계는 늘 있습니다. 사울의 손에 다윗을 지켜 줄 사람은 요나단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을 안전하게 지켜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인생의 환난과 고난 속에서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해야 합니다.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기도 제목

인생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환란 중에 늘 기도하게 하소서.

에셀 바위 곁에 있으라

본문 사무엘상 20:12~23 찬송가 380장

>>> 본문 해설

요나단은 다윗을 향한 아버지 사울의 뜻을 살펴서 다윗에게 알려주기로 약속했습니다(12절). 만일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벌을 내리고 또 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요나단은 다윗에게 자신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와 인자하심을 자신에게 베풀어서 자신을 죽지 않게 하고, 또한 자신의 집에 인자함을 베풀라고 부탁했습니다(14~15절). 요나단은 이미 아버지 사울이 패위 될 것이고 다윗이 왕위에 오를 것을 예견하고 있는 듯합니다. 아버지 사울이 이 사실을 알면 요나단에게 심히 분노하여 어떤 처벌을 내릴지 모릅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다윗을 위해 일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의 편에 섰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사랑하였습니다. 진실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런 사랑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한다면 그러한 교제가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에셀바위 밑에 숨어 있으라고 했습니다. 다윗을 향한 아버지 사울의 심중을 떠보고 다윗의 행할 바를 알려주기로 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이 숨어 있는 들판으로 나와서 화살을 쏘고 한 아이에게 그 화살을 찾으라고 하면서 '네 앞에 있다'고 말하면 돌아오고, '네 뒤에 있다'라고 하면 도망가라고 계획을 알려주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말한 것에 대한 확증으로서 자신과 다윗 사이에 영원토록 계신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제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 두 사람은 알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사랑하고 아껴주던 요나단을 떠나야 할지도 모르는 순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다려야 했습니다. 우리도 인생에서 이런 상황에 봉착하곤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와 헤어져야 할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의 선한 인도를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기도 제목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을 믿고 신뢰하게 하소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본문 사무엘상 20:24~34 찬송가 322장

>>> 본문 해설

다윗은 약속대로 들에 숨어 있었습니다. 초하루가 되어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 평사와 같이 요나단과 군대장과 아브넬도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왕은 무슨 사고가 있어서 다윗이 참석하지 못했을 것으로 생각하고 첫날을 무사히 넘어 갔습니다. 다음 날 또 식사 시간에 다윗이 보이지 않자 사울이 요나단에게 다윗이 보이지 않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이 가족들과 함께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갔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심한 욕을 퍼부었습니다. 요나단에게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이라고 욕을 하며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마땅히 죽어야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죽는 길만이 자신의 나라가 든든히 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사울을 폐하셨고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예언하고 기름을 부었습니다(15:26). 사울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신의 왕권을 지키는 일에만 급급했습니다.

요나단은 사울에게 어찌하여 다윗을 죽이려고 하느냐고 반문하였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단창을 던져 요나단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는 이성을 잃어버린 짐승처럼 자신을 통제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자신의 아들까지도 죽이려고 했습니다. 질투와 시기에서 비롯된 죄악은 그의 인격을 파괴하였던 것입니다. 죄는 빨리 회개하고 끊어내지 않으면 차후 통제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나단은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한 것을 슬퍼하며 먹지 아니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우리는 불의한 일에 얼마나 너무나 무감각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의인이 박해를 당하고, 불법이 성행한 것을 보고도 슬퍼하지 않고 대수롭게 여기는 현실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요나단처럼 박해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슬퍼하며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기도 제목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주의 백성들을 돌아보게 하소서.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본문 사무엘상 20:35~42 찬송가 463장

>>> 본문 해설

아침에 요나단은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로 나갔습니다.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것을 요나단은 확인하였기에 이제 다윗에게 약속대로 알려주어야 했습니다. 요나단은 작은 아이에게 자신이 쏘는 화살을 주어오라고 지시한 후, 아이가 달려 나갈 때 아이를 넘어 더 멀리 화살을 쏘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이에게 말 앞에 있으니 빨리 주어야 할 것은 재촉하였습니다. 그 말은 다윗에게 도망가라는 신호였습니다. 화살을 주어 온 아이는 아무 것도 알지 못하였고 요나단과 다윗만 서로 간에 정보를 공유하였습니다. 아이를 성읍으로 들어가게 한 후 다윗이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세 번 절하였습니다. 요나단과 다윗은 서로 헤어짐의 입을 맞추고 서로 심히 울었습니다. 다윗이 더욱 슬퍼하였습니다.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도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답게 교제하였던 교우들도 헤어져야 할 시간이 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평안을 기원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간에 맺었던 언약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요나단 자신과 다윗 사이에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계시고, 또한 요나단의 자손과 다윗의 자손 사이에 하나님이 계심을 상기시켜주었습니다. 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고 다윗은 이 약속을 기억하고 요나단의 자녀 므비보셋을 살려 주었을 뿐만 아니라, 왕의 식탁에서 음식을 먹게 하였고, 후하게 돌보아 주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의 손자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요나단과의 우정과 약속을 기억하며 요나단의 자녀를 귀하여 여겼습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따라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도 매사에 신실한 삶의 살아야 합니다.

》》 목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기도 제목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늘 신실하게 살게 하소서.

거룩한 떡이 있나니

본문 사무엘상 21:1~15 찬송가 323장

>>> 본문 해설

다윗은 사울의 낫을 피하여 뚝으로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히멜렉은 다윗을 영접하여 들였습니다. 다윗은 자신과 함께 한 소년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을 요구하였고, 아히멜렉은 진설병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히멜렉은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드렸다가 물려낸 떡을 다윗과 소년들에게 주었습니다. 오직 제사장들만이 먹을 수 있는 떡이었지만, 아히멜렉은 굶주린 다윗과 소년들을 위하여 그 떡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아히멜렉은 율법의 문자에 얽매이지 않고 율법의 근본 정신이었던 사랑을 실천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에 이 사건을 언급하면서 아히멜렉이 율법의 근본 정신인 사랑을 실천한 것을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의 문자에 매여서 형제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율법의 근본 정신은 사랑과 선을 행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율법은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다윗은 아히멜렉으로부터 골리앗이 사용했던 칼도 받아서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갔습니다. 가드 왕 아기스의 신하들은 다윗을 알아보고 그를 경계하자, 다윗은 아기스 왕앞에서 침을 흘리면 대문짝을 그적거리며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였습니다. 그러자 아기스는 왜 미치광이를 데리고 왔느냐고 신하들을 꾸짖었고, 다윗은 무사히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과거 블레셋의 위대한 장수 골리앗도 죽였던 용감한 장수 다윗은 이제 적군의 왕 앞에서 미친 척을 해야 하는 비천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다윗이 신앙을 버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런 비천한 위치에까지 이르러도 하나님께서 우리 중심에 있으면 반드시 회복될 것을 믿어야 합니다. 다윗은 지금 비천한 모습으로 소개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기도 제목

비천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내하게 하소서.

그와 함께 한 자

본문 사무엘상 22:1~10 찬송가 288장

》》 본문 해설

다윗은 가드를 떠나 아둘람 굴과 모압의 요새와 이스라엘의 헤렛 수풀에서 도망자 생활을 했습니다(1, 3, 5절). 이 시기에 다윗은 시편 142편을 지었고 그 제목이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지은 마스크길 곧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시편에서 다윗은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라고 불평했지만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라고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인간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여전히 따르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환란을 당한 모든 자, 빛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었습니다. 다윗과 함께한 사백 명은 모두가 자발적으로 다윗을 따랐습니다(2절). 다윗이 모압 왕을 만날 때 부모님의 안전을 부탁했습니다(3절).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인도해 주실지 분명해질 때까지 모압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는 말씀을 전했을 때 그는 그 말에 순종해 헤렛 수풀로 이동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고난의 환경이 예상됨에도 다윗은 선지자의 말을 듣는 다윗의 모습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임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어려운 환경 중에도 여전히 따르던 자들의 지도자였고 부모님을 깊이 생각하는 자녀였습니다.

사울에게는 따르던 신하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에게는 충성스런 신하가 없습니다. 요나단과 다윗 사이의 맹약에 대해 아무도 말해 주지 않았고 사울 자신을 위해 슬퍼하는 자도 없었으며 요나단이 다윗을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자기를 죽이려 할 때 알려 줄 사람도 없었습니다(8절). 애들 사람 도액이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행한 일을 사울에게 고하지만 그것은 자신에게 돌아올 혜택을 생각한 이기적인 행동이며 거저된 모습이었습니다(9~10절). 세상권세를 가진 사울에게는 도액같은 간신들만 주위에 있지만 도망자인 다윗에게는 충성스럽게 따르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던 초대교회의 제자들과 성도들은 세상과 나는 간곳없고 구속한 주만 바라보던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신앙과 삶의 자리에서 누구의 편에 서서 누구를 따르고 있는지요?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기도 제목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는 제자도의 삶을 살게 하소서.

나의 탓이로다

본문 사무엘상 22:11~23 찬송가 425장

» 본문 해설

사울왕은 도역의 모함에 의해 늪에 있던 아히멜렉과 제사장들을 불렀습니다. 사울이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고 추궁했습니다(13절). 아히멜렉은 다윗이 모든 신하 중에서 가장 충성된 자라고 담대히 말했습니다. 그는 제사장으로서 다윗을 위해 하나님께 물은 일은 당연하다고, 자신이 무죄하다고 말했습니다(14~15절). 권력앞에서도 비굴하지 않고 솔직히 말한 아히멜렉의 양심과 태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사울은 사사로운 감정에 의해 공평치 못한 판결을 내려 아히멜렉과 그의 가문을 몰살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울의 호위병들이 제사장들을 죽이지 못하자 사울은 도역을 시켜 하나님을 수종드는 제사장 세마포 에봇을 입은 자 팔십오 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늪의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와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습니다(17~19절). 사울은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선지자 사무엘의 명령(15장 15절)은 여기면서도 제사장이 하나님의 거룩한 봉사자라는 것을 모를리 없는 사울은 자신의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 학살을 명령했습니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한명인 아비아달이 사울에게서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피신했습니다. 일련의 사건을 다윗에게 보고할 때 다윗은 “네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라며 자신에게 책임을 돌리며 아비아달을 품었습니다(23절).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룬 참된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행한 일에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합니다. 남의 탓만 하며 불평, 불만, 원망, 시기, 질투하기보다는 내 탓으로 돌리며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기도 제목

남을 탓하지 말고 내게 주신 은혜에 족하며 주님이 주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게 하소서.

여호와께 묻자와

본문 사무엘상 23:1~14 찬송가 86장

>>> 본문 해설

사울이 다윗을 살해하려는 내분을 블레셋 족속은 기회로 삼았습니다. 블레셋 족속이 그일라를 쳐서 타작마당을 탈취했습니다(1절).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을 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2절). 그러나 다윗의 사람들은 유다에 있기도 두려운데 그일라까지 가 어떻게 블레셋과 싸우냐며 반대했습니다(3절). 다윗은 다시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은 네 손에 넘기리라 말씀하셨습니다(4절). 사울은 사람을 두려워한 반면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의지하여 그일라를 구원했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그일라에 온 소식을 듣고 다윗을 공신으로 취급하기보다 다시 다윗을 죽이려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라며 거짓말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악용하여 자신의 불의한 계획을 정당화하려고 했습니다. 사울은 모든 군사들과 함께 그일라로 내려갔습니다. 다윗은 이 소식을 접하고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을 통해 자신이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비록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는 신세였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물으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원했고, 항상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11절)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일라를 떠나 광야의 요새와 십 광야 산골에 머물렀습니다. 다윗과 육백 명 가량의 사람들은 이전과 달리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매일 찾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여전히 도망자의 신분이었지만 이전의 모습과는 확연히 구분되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보전하기 위해 사울을 피해 도망하기만 했던 다윗은 이제 생명의 위협 가운데도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위급한 상황 속에 사람의 목소리를 들을 것인가? 하나님께 기도할 것인가?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기도 제목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응답하심 가운데 거하는 주의 백성 삼아 주소서.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본문 사무엘상 23:15~29 찬송가 486장

>>> 본문 해설

다윗은 계속해서 메마르고 척박한 유다 광야에서 쫓기는 도망자의 신세로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얼마나 많은 거리를 도망다니고 있는지 잘 짐작이 안될 정도로 십 광야 수풀(15절)에서 하길라 산 수풀 요새(19절), 마온 황무지 아라바(24절), 엔게디 요새(29절)로 험한 지형으로 도망다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추수한 곡식을 약탈당하는 그일라 주민들을 보호하고 구해 주라는 여호와와 명령에 순종해 블레셋과 싸워 물리쳤지만 그일라 사람들은 오히려 사울에게 다윗을 고발했습니다. 다윗은 또 다시 도망자가 되어 십 광야 수풀에 숨었습니다. 숨어있는 다윗에게 뜻밖에 한 사람을 보내어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바로 요나단이었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러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습니다(16절). 그리고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네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며 위로했습니다(17절).

격려와 위로도 잠시, 십사람들이 사울에게 다윗이 숨어있는 위치를 고발했습니다(19절). 다윗이 숨는 곳마다 사울이 따라와 목숨을 위태롭게 하여 다윗은 마온 황무지 아라바로 도망을 갔고(24절), 사울의 포위망이 점점 좁혀오자 다윗이 거의 잡힐 뻔한 위기에 몰렸습니다(26절). 그 때, 전령이 사울에게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 왔다고 급보를 전하게 됩니다(27절). 위기 상황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구하실 때 여러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사울과 그 군사로부터 보호하셨습니다. 다윗과 함께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바랍니다.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기도 제목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거하는 매일의 삶의 되게 하소서.

기름부음 받은 자가 됩니까

본문 사무엘상 24:1~7 찬송가 310장

>>> 본문 해설

사울이 블레셋과 싸우고 돌아왔을 때 다윗이 엔게디 황무지에 있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1절). 엔게디라는 곳이 광야가 아니라 아주 험한 지형의 바위와 돌들로 가득한 산악지역으로 들염소, 산양들이 많이 서식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사울은 이런 험한 지형 때문에 이스라엘 전역에서 뽑은 삼천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다윗의 뒤를 쫓았습니다(2절).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숨어있던 굴속에 사울이 용변을 보기 위해 굴 깊은 곳까지 들어왔습니다(3절). 다윗의 사람들은 위기가운데 기회라며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네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대로 그에게 행하라”라며 사울을 죽이고자 부추겼습니다(4절). 그러나 다윗은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됩니까”며 사울을 해치지 못하게 했습니다(6절).

다윗은 상황이나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을 존중해야 한다는 말씀의 원리를 붙잡았습니다(6절). 기름 부음 받은 사람에 대한 존중은 기름 부으신 분에 대한 존중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에 의한 것이라면 몰라도 단지 개인적인 이유만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임의로 칠 수는 없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다는 표시로 옷자락만 베었습니다(4절).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에 대한 순종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는 내 생각에 못마땅하고 내 의견과 맞지 않아도 존중받아야 마땅합니다. 오늘날 기름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의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롬 12:10)하여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야 합니다.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기도 제목

형제를 사랑하고 우애하며 존경하기를 먼저하는 나 자신이 되게 하소서.

내 손으로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본문 사무엘상 24:8~22 찬송가 455장

>>> 본문 해설

용변을 마친 사울이 일어나 동굴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다윗이 “내 주 왕이여”라고 사울을 불렀습니다. 사울이 뒤 돌아보자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며 왕에 대한 예를 표합니다(8절). 자신의 원수같은 사람인데도 땅에 엎드려 절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이 기름부으신 종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사울을 향하여 소리쳐 말합니다. “어찌하여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는 사람들의 말을 듣습니까? 여호와께서 왕을 내 손에 붙이신 것을 아셨을 것입니다. 왕을 죽이라고 건의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나는 주를 해치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하면서 다윗은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여주었습니다(9~11절). 다윗 자신의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12절) 고백하며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판결하시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15절).

사울은 큰 소리를 내며 울었습니다(16절). 오로지 다윗을 잡아서 죽여야겠다는 생각 밖에 없었는데 사울의 마음이 크게 흔들린 것입니다. 다윗에게 “나는 너를 학대했는데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라고 말했습니다(17절). 다윗을 죽이려고 한 자신의 죄를 뉘우쳤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본심을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네 손에 건고히 설 것을 안다”고 말했습니다(20절). 사울은 다윗에게 자신의 후손을 끊지 말 것과 자기 아비의 집에서 자기 이름을 멸하지 말 것을 맹세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제 자비를 구하는 사람은 다윗이 아니라 사울입니다. 다윗과 사울의 입장이 뒤바뀌었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주께 있으니 주께 맡겼을 때 놀라운 변화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 목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기도 제목

내 뜻을 주장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네게 은혜를 얻게 하라

본문 사무엘상 25:1~8 찬송가 543장

>>> 본문 해설

한 시대를 이끌었고 이스라엘의 두명의 왕, 사울과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던 사무엘 또한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합니다. 이것은 사사시대의 끝을 알리는 말 씀입니다. 온 이스라엘의 무리가 모여 애곡하고 고향인 라마에 그를 장사했습니다(1절). 사무엘의 장사이후 다윗은 바란 광야로 내려갔습니다. 마온이라는 곳에 어떤 사람이 살았는데 나발이라는 사람과 아내 아비가엘이었습니다(3절). 나발은 갈멜족속이고 인색하고 악하기로 짝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의 아내인 아비가엘은 총명하고 지혜롭고 용모가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이 부부는 굉장한 부자로 염소 천 마리, 양이 삼천 마리나 되었습니다(2절).

다윗이 광야에서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는 소식을 듣고 열 명의 소년을 보냈습니다. 양털을 깎는 시기에 친절하게 손님을 대접하는 것은 일반적인 전례였습니다(삼하 13:23~24). 왜냐하면 양털을 깎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고용했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 지역에서 고가로 매매되는 양털을 얻는 즐거운 날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우리가 좋은 날에 왔으니 당신의 종들과 아들같은 다윗에게 먹을 것을 무엇이든지 좀 챙겨 주십시오”라고 정중히 부탁하게 합니다(8절). 즐거운 날에 이웃과 더불어 기쁨을 나누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미덕입니다(마 11:17; 롬 12:15). 은혜를 베푸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그 크신 은혜를 받았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우리는 은혜를 받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나누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기도 제목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예수님의 모습처럼 주변의 연약한 자를 돕고자 하는 마음을 나에게 주소서.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본문 사무엘상 25:9~22 찬송가 212장

>>> 본문 해설

다윗의 인생에서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 장면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힘쓰던 그도 긴장이 풀린 그 순간, 유다 집안을 끝장내겠다는 잘못을 범하고 있습니다. 나발은 먹을 것을 달라는 다윗의 부하들을 가리켜, 그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과 그의 군대를 합법적인 군대가 아닌 테러리스트로 정의한 것입니다. 같은 동족인 유다 족속에게 이처럼 매몰차게 저절을 당한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들에 대한 분노가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다윗의 군대가 나발의 짐승을 지켜주었고(15절), 자신은 차기 이스라엘 왕이라는 정체성이 강했던 다윗은 이를 묵과할 수 없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600명의 군사들 중에서 400명을 보내어 나발을 칠 것을 명했습니다. 다윗은 부하들에게 “칼을 차라”고 명했는데, 이전과는 다윗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고 의존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여주는 다윗의 모습은 칼과 창으로 상대방을 제압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변한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의 힘을 더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잘못된 모습이 그에게서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그 순간,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 자리를 내어드리지 못하는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 묵상 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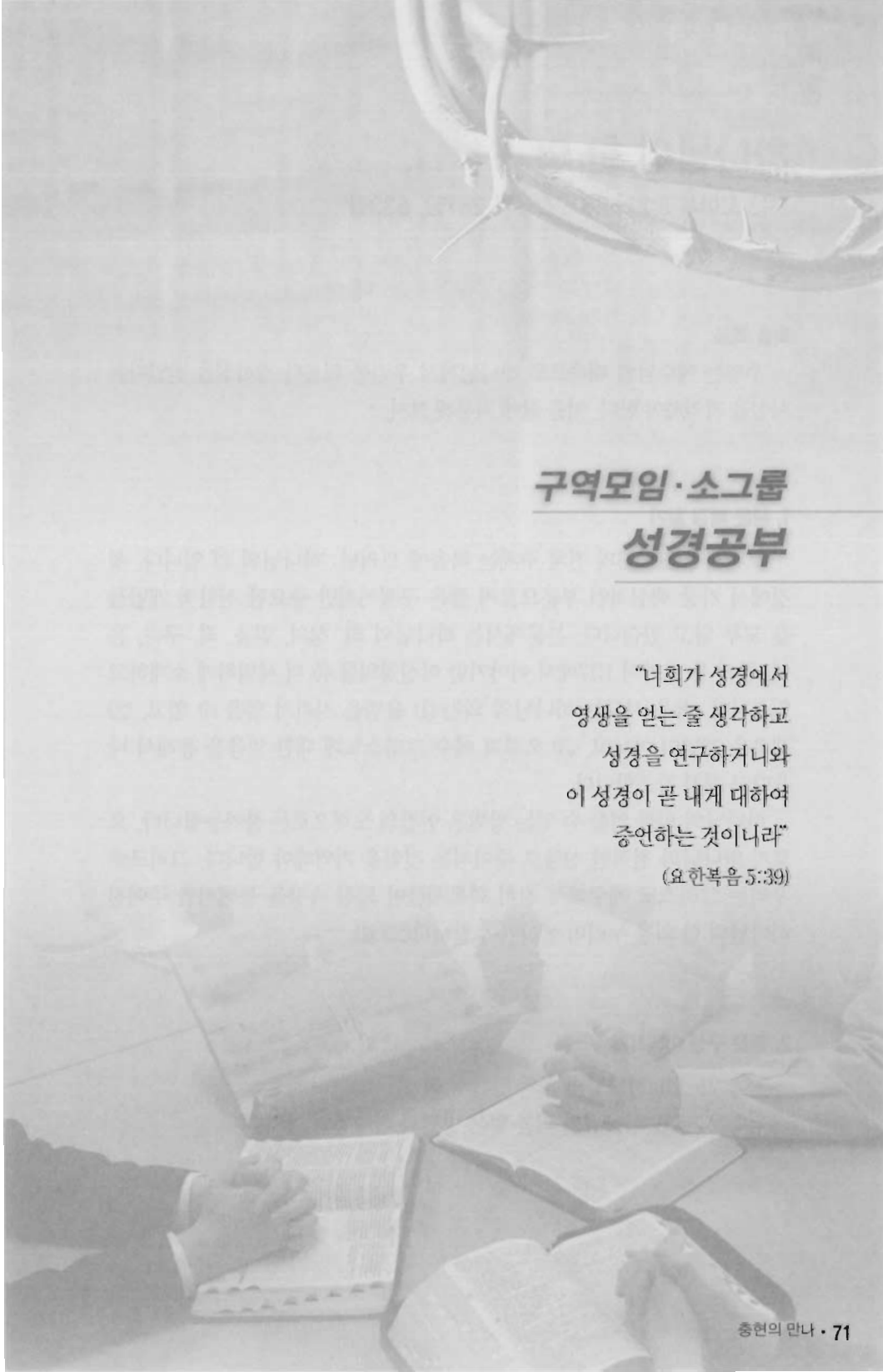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기도 제목

하나님께서 나의 삶이 주인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구역모임·소그룹

성경공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5:39)

하나님의 한 의

본문 로마서 3:21~26 찬송가 287장, 533장

학습 목표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이를 삶에 적용해 보자.

1. 본문 배경 알기

로마서 3:21~26의 전체 주제는 복음에 드러난 '하나님의 의'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써 짧은 구절이지만 중요한 신학적 개념들을 모두 담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의, 칭의, 믿음, 죄, 구속, 은혜, 공의 등 로마서 1:17에서 이야기한 이신칭의를 좀 더 세밀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의는 (1) 율법을 지켜서 얻을 수 없고, (2) 새로운 개념이 아니고, (3)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통해서 나온다고 재차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인간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로 주어지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화목제물이 되신 속량을 통해서만 주어진 하나님의 한 의를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25절).

2. 본문 구성 이해하기

롬 3:21~23 하나님의 의와 인간의 죄

롬 3:24~26 하나님의 의를 얻는 방법과 하나님의 공의

• 신앙고백(사도신경)과 찬송과 기도로 시작한 후 본문을 읽고 말씀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3. 본문 연구하기

(a) 하나님의 의와 인간의 죄(롬 3:21~23)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구원의 조건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작용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유효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의는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미칠 필요가 있는데, 그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Q. 율법 대신에 나타난 것은 무엇입니까?(21절)

Q. 하나님의 의는 누구를 믿음으로 주어집니까?(22절)

(b) 하나님의 의를 얻는 방법과 하나님의 공의(롬 3:24~26)

하나님의 의롭게 하시는 역사는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1)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2)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적인 역사를 통해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속하신 수단은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대속의 죽음입니다. 화목제물이 되신 그리스도의 희생이 하나님의 공의를 변호하는 것입니다.

Q. 우리는 어떻게 의롭다고 인정되었습니까?(24절)

Q.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친히 무엇이 되셨습니까?(25절)

4. 본문 적용하기

Q. '하나님의 의'은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의롭다고 칭해진 삶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 당신이 오늘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Q. 당신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받은 삶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하고 계십니까?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을 이웃에게 전하기 위해 당신이 오늘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기도 나눔

성 명	기도제목

와울 말씀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롬 3:21)

* 합심기도, 찬송 후에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모임을 마칩니다.

하나님의 약속

본문 로마서 4:18~22 찬송가 202장, 305장

학습 목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어야 한다. 이 삶을 살아가도록 적용해보자.

1. 본문 배경 알기

로마서 4:18~22의 전체 주제는 아브라함과 맺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은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끝까지 바랐고(18절), 이를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의의 선물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이었음을 증명합니다(22절).

2. 본문 구성 이해하기

롬 4:18~20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

롬 4:21~22 하나님께 영광이 됨

3. 본문 연구하기

(a)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롬 4:18~20)

아브라함은 신체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었습니다. 당시 아브라함은 100세였고, 그의 아내 사라의 태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밝힙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 바라는 신실한 믿음을 그의 인생을 통해 보여 주었습니다.

Q. 아브라함은 그의 무엇 때문에 의롭다고 칭해지게 되었습니까?(19~20절)

Q.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무엇을 의심하지 않았습니까?(20절)

(b) 하나님께 영광이 됨(롬 4:21~22)

아브라함의 믿음은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습니다(20b절). 이 때문에 의로 여겨졌다고 결론을 맺습니다. 한편, 바울 사도가 예로 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아들 이삭을 바치고자 했던 모리아 산 사건은, 그가 하나님의 의의 선물을 받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이 믿음 때문이었음을 증명합니다.

Q.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대했습니까?(21절)

Q.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은 어떻게 인정하셨습니까?(22절)

4. 본문 적용하기

Q. 당신이 받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까? 이 약속을 끝까지 믿고 지키기 위해 당신이 오늘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Q. 당신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습니까?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 당신이 오늘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기도 나눔

외국 말쓰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롬 4:20)

* 합심기도 찬송 후에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모임을 마칩니다.

하나님의 영광

본문 로마서 5:1~2 찬송가 412장, 298장

학습 목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해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이 화해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방법을 적용해 보자.

1. 본문 배경 알기

로마서 5:1~2의 전체 주제는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로 인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죄인이었던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존재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아니라는 선언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가 진 죄를 모두 해결하신 사건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즉 하나님과 믿는 사람들이 더 이상 분리되지 않고 화합된 사실 앞에 우리는 즐거워해야 합니다.

2. 본문 구성 이해하기

롬 5:1 하나님과의 화평

롬 5:2 하나님의 영광

• 신앙고백(사도신경)과 찬송과 기도로 시작한 후 본문을 읽고 말씀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3. 본문 연구하기

(a) 하나님과의 화평(롬 5:1)

‘하나님과의 화평’이라는 말 속에는, 병이 든 사람에게 ‘다 나았다’ 또는 사형수에게 ‘석방되었다’는 말보다 더 기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하나님과의 화해를 가져왔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작용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Q. 우리는 무엇으로 의롭다 함을 받게 되었습니까?(1절)

Q. 우리는 누구를 통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까?(1절)

(b) 하나님의 영광(롬 5:2)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2절)는 말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증으로 가져온 우리의 구원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즐겁게 살아가는 삶과 하나님의 공의를 통해 죄가 이 땅에 설 곳이 없음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Q.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2절)

Q. 하나님과 화해된 삶에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고 즐거워해야 합니까?(2절)

4. 본문 적용하기

Q. 당신은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습니다. 당신이 이웃과 화평케 하기 위해 오늘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Q. 당신은 하나님께 영광돌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오늘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기도 나눔

성 명	기도제목

외울 말씀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뵈옵므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롬 5:2)

* 합심기도, 찬송 후에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모임을 마칩니다.

하나님의 사랑

본문 로마서 5:3~11 찬송가 299장, 304장

새나눔

학습 목표

우리의 연약함과 죄 가운데서 구원의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한다. 이 은혜를 누리기 위한 삶을 적용해 보자.

1. 본문 배경 알기

로마서 5:3~11의 전체 주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에서의 대속의 죽음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된 사실은 전적인 그분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 연약해졌을 때에 하나님은 독생자를 통해 우리와 화해하셨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2. 본문 구성 이해하기

롬 5:3~8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심

롬 5:9~11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행하심

3. 본문 연구하기

(a)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심(롬 5:3~8)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이 구원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에게 친히 확증시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불순종하고 거부하고 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어 우리의 죄를 대속케 하셨다는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Q.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까?(6, 8절)

Q.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까?(8절)

(b)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행하심(롬 5:9~11)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는 의롭다하셨고(9절), 하나님과 화목케 하셨습니다(10절). 바울 사도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구원하심을 믿음으로, 우리는 이에 대한 기쁨과 확신에 찬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 모든 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가능해진 것입니다.

Q.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우리는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9절)

Q. 우리는 누구로 인해 하나님과 화목케 되었습니까?(11절)

4. 본문 적용하기

Q.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끼고 계십니까? 이 삶을 누리기 위해 오늘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Q. 당신은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누리기 위해 당신이 오늘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기도 나눔

외국인 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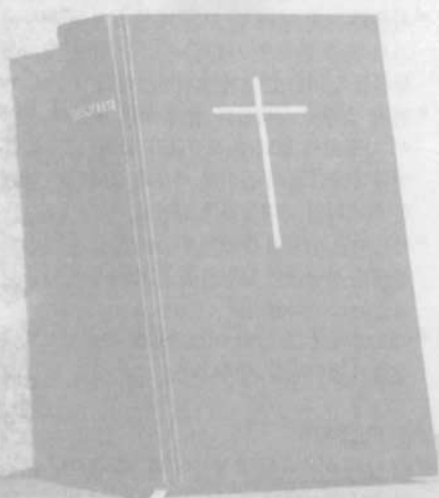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롬 5:8)

* 합심기도, 찬송 후에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모임을 마칩니다.

성경공부
본문말씀

성경공부 본문말씀

- 한글 90P
- 영문 106P



1월 1일(금요일)

사무엘상 14장

- ¹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 ² 사울이 기브아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 한 백성은 육백 명 가량이며
- ³ 아히아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들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와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 ⁴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귀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 ⁵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므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 ⁶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레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와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 ⁷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하여 따르리이다
- ⁸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 ⁹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 ¹⁰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 ¹¹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이매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 ¹²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 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 ¹³ 요나단이 손 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었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었으니
- ¹⁴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만나질 같이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죽인 자가 이십 명 가량이라
- ¹⁵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꾼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1월 2일(토요일)

- ¹⁶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 저리 흩어지더라
- ¹⁷ 사울이 자기와 함께 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하여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 ¹⁸ 사울이 아히아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 때에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 ¹⁹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네 손을 거두라 하고
- ²⁰ 사울과 그와 함께 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치므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 ²¹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 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 ²²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 ²³ 여호와께서 그 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므로 전쟁이 뻔아엿을 지나니라

1월 3일(주일)

- ²⁴ 이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탕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이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²⁵ 그들이 다 수풀에 들어간즉 땅에 풀이 있더라

²⁶ 백성이 수풀로 들어갈 때에 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니

²⁷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의 꿀을 찌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²⁸ 그 때에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이다 하였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²⁹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늘

³⁰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륙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³¹ 그 날에 백성이 므마스에서부터 야말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³²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찢어 먹었더니

³³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찢어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러 오라 하고

³⁴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끄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 먹되 찢어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³⁵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1월 4일(월요일)

³⁶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³⁷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 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³⁸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이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³⁹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⁴⁰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⁴¹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뿔뿔히 백성은 면한지라

⁴²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뿔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뿔히니라

⁴³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네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⁴⁴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⁴⁵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에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와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 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 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⁴⁶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⁴⁷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망에 있

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⁸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⁹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이스위와 말기수야요 그의 두 딸의 이름은 이러하니 맏딸의 이름은 메랍이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며

¹⁰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히노암이니 아히마아스의 딸이요 그의 군사령관의 이름은 아브넬이니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며

¹¹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버지는 넬이니 아비엘의 아들이었더라

¹²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 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모았더라

1월 5일(화요일)

사무엘상 15장

¹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와 말씀을 들으소서

²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³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고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였나이다 하니

⁴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 보니 보병이 이십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만 명이라

⁵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⁶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 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⁷ 사울이 하월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⁸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⁹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1월 6일(수요일)

¹⁰ 여호와와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¹¹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¹²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¹³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와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¹⁴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이까 하니라

¹⁵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 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¹⁶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 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¹⁷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 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¹⁸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이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¹⁹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와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²⁰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와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 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²¹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 왔나이다 하는 지라

²²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²³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와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1월 7일(목요일)

²⁴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와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²⁵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²⁶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와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²⁷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겹옷자락을 붙잡으매 찢어진지라

²⁸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²⁹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³⁰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³¹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³²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 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³³ 사무엘이 이르되 네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네 어머니께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³⁴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아 자기의 집으로 올라가니라

³⁵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1월 8일(금요일)

사무엘상 16장

¹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 지라

²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³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⁴ 사무엘이 여호와와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⁵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려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⁶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암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와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⁷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⁸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⁹ 이새가 삼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¹⁰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¹¹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¹²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¹³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 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와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1월 9일(토요일)

¹⁴ 여호와와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¹⁵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¹⁶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오시리이다 하는지라

¹⁷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¹⁸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터이다 하더라

¹⁹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 치는 네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²⁰ 이새가 떡과 한 가죽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²¹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서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²²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²³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축 사울이 상쾌하여 낮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1월 10일(주일)

사무엘상 17장

¹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의 에베스담뎀에 진 치매

²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 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³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⁴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돌우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여섯 규빗 한 뼘이요

⁵ 머리에는 놋 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오천 세겔이며

⁶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찼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매었으니

⁷ 그 창 자루는 베를 채 같고 창 날은 철 육백 세겔이며 방패 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⁸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⁹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

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²⁵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²⁶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1월 11일(월요일)

¹ 다윗은 유다 베들레헬 에브라임 사람 이새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새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여덟 아들이 있는 중

²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³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⁴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헬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⁵ 그 블레셋 사람이 사십 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⁶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네 형들을 위하여 이 붉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열 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네 형들에게 주고

⁷ 이 치즈 열 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 주고 네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⁸ 그 때에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⁹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¹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¹¹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¹²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돌우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¹³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¹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 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¹⁵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¹⁶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1월 12일(화요일)

¹⁷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발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¹⁸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하고

¹⁹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²⁰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²¹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²²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²³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키는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 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²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죽였나이다

²⁵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 계시는 하

나눔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라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라

³⁷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³⁸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낚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³⁹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 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⁴⁰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다섯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1월 13일(수요일)

¹ 블레셋 사람이 방패 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²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³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⁴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⁵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⁶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⁷ 또 여호와와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

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⁸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려며

⁹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¹⁰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¹¹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 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¹²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아림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려졌더라

¹³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¹⁴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1월 14일(목요일)

¹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매

²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였더니

³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⁴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아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헬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하니라

사무엘상 18장

¹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치매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

를 자기 생명 같이 사랑하니라
 2 그 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3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 같이 사랑하여 더 붙어 언약을 맺었으며
 4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겹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 하였더라
 5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1월 15일(금요일)

6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7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8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9 그 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10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 있게 내리매 그가 집 안에서 정신 없이 떠돌아다니다가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 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 지라
 11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두 번 피하였더라
 12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시므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13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으며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14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15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16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1월 16일(토요일)

17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딸 딸 메랍을 네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와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18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 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까 하였더니
 19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므홀랏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20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21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22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니라 그런즉 네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23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며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24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리이러하게 말하더이다 하니
 25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 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백 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26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기므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27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이백 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

저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²⁸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²⁹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³⁰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1월 17일(주일)

사무엘상 19장

¹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²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피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³ 내가 나가서 네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서서 네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네게 알려 주리라 하고

⁴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⁵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⁶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⁷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1월 18일(월요일)

⁸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죽이며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⁹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¹⁰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¹¹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 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¹²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 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¹³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 것을 덮었더니

¹⁴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¹⁵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¹⁶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¹⁷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¹⁸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웃으로 가서 살았더라

¹⁹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웃에 있더이다 하매

²⁰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²¹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리매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²²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에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옴에 있나이다

²³ 사울이 라마 나옴으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옴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²⁴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1월 19일(화요일)

사무엘상 20장

¹ 다윗이 라마 나옴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네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²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나라

³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네게 은혜 받은 줄을 네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와 살아 계심과 네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 뿐이니라

⁴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⁵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⁶ 네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 때에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을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됨이니이다 하라

⁷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네 종이 평안하리니와 그

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⁸ 그런즉 바라건대 네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네가 네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네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네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라

⁹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네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네게 와서 그것을 네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¹⁰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네 아버지께서 혹 엄하게 네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알리겠느냐 하더라

¹¹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1월 20일(수요일)

¹²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피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네게 알리지 않겠느냐

¹³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 데도 내가 이 일을 네게 알려 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¹⁴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¹⁵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 버리신 때에도 너는 네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 버리지 말라 하고

¹⁶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이다 하니라

¹⁷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할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¹⁸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네 자리가 비므로 내가 없음을 자세히 물으실 것이라

¹⁹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 바위 곁에 있느니라

³⁰ 내가 과녁을 쏘려 함 같이 화살 셋을 그 바위 곁에 쏘고

³¹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네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³²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네 앞쪽에 있다 하거든 네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³³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니라

1월 21일(목요일)

³⁴ 다윗이 들에 숨으니라 초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에

³⁵ 왕은 평시와 같이 벽 곁 자기 자리에 앉아 있고 요나단은 서 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 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³⁶ 그러나 그 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 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보다 정녕히 부정한가보다 하였음이더니

³⁷ 이튿날 곧 그 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하니

³⁸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배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³⁹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네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네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⁴⁰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네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네 수치와 네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 됄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⁴¹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네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 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⁴²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이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⁴³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⁴⁴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1월 22일(금요일)

⁴⁵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로 나가서

⁴⁶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에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⁴⁷ 아이가 요나단이 쏘 화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네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⁴⁸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달려들라 하매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주워 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⁴⁹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⁵⁰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하니

⁵¹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세 번 절한 후에 서로 입 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⁵²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와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끼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1월 23일(토요일)

사무엘상 21장

¹ 다윗이 늙어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

되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 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²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일을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네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리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³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다섯 덩이나 무엇이냐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⁴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⁵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삼 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⁶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 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 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 낸 것이더라

⁷ 그 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엑이라 이름하는 애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⁸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하므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⁹ 제사장이 이르되 네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싸여 예봇 뒤에 있으니 네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¹⁰ 그 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¹¹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이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

하였나이까 한지라

¹²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¹³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체하고 대문밖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¹⁴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¹⁵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1월 24일(주일)

사무엘상 22장

¹ 그러므로 다윗이 그 곳을 떠나 아들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들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²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빛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사백 명 가량이었더라

³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⁴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⁵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⁶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 때에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 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⁷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이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⁸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니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

다가 나를 치려 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⁹ 그 때에 에돔 사람 도엑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늙어 와서 아히독의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¹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라

1월 25일(월요일)

¹¹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독의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늙어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¹² 사울이 이르되 너 아히독의 아들이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¹³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¹⁴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 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이까

¹⁵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이까 결단고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버지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¹⁶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네 아버지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¹⁷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협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 또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¹⁸ 왕이 도엑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엑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 날에 세마포 예뻐 입을 자 팔십오 명을 죽였고

¹⁹ 제사장들의 성읍 늙은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

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²⁰ 아히독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²¹ 사울이 여호와와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리매

²²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 날에 에돔 사람 도엑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네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²³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네 생명도 찾는 자니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1월 26일(화요일)

사무엘상 23장

¹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더라 하니

²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³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지이까 한지라

⁴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⁵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 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⁶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예뻐운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⁷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리매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간헐도다

⁸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모으고 그일라

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려 하더니

⁹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예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¹⁰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¹¹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 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¹²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¹³ 다윗과 그의 사람 육백 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꾀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¹⁴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 광야 산 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1월 27일(수요일)

¹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 광야 수풀에 있더라

²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 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³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네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⁴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⁵ 그 때에 십 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아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 산 수풀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

까

⁶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무니이다 하니

⁷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⁸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⁹ 그가 숨어 있는 모든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 천 명 중에서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¹⁰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십으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라

¹¹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¹²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¹³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¹⁴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 곳을 셀라하마는곳이라 칭하니라

¹⁵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1월 28일(목요일)

사무엘상 24장

¹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라 하니

²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삼천 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³ 길 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

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⁴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
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
시더니 이것이 그 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
어나서 사울의 겂옷 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⁵ 그리 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찢려

⁶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
와의 기를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
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와 기
를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⁷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1월 29일(금요일)

⁸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
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⁹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
하여 들으시나이까

¹⁰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
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
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
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와 기를 부음을 받
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¹¹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
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겂옷 자
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과가 없는 줄
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
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
이다

¹²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
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¹³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
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¹⁴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

다

¹⁵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
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
어 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
나이다 하니라

¹⁶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치매 사울
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¹⁷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확대하되 너는 나
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¹⁸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
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
지 아니하였도다

¹⁹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네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네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²⁰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
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²¹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
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
제 여호와와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²²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
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1월 30일(토요일)

사무엘상 25장

¹ 사무엘이 죽으매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
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
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²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삼천 마리로 염소가 천
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 털을 깎고
있었으니

³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
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
는 갈멜 족속이었더라

⁴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 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
에서 들은지라

⁵ 다윗이 이에 소년 열 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
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
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⁶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

라 네 집도 평강하라 네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⁷ 네게 양 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네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⁸ 네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네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네 손에 있는 대로 네 종들과 네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1월 31일(주일)

⁹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치매

¹⁰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즈음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¹¹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 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¹²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¹³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사백 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이백 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¹⁴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¹⁵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지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¹⁶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¹⁷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¹⁸ 아비가일이 급히 떡 이백 덩이와 포도주 두 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다섯 마리와 붉은 곡식 다섯 세아와 건포도 백 송이와 무화과 뭉치 이백 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¹⁹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 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²⁰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²¹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²²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 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1월 1일(금요일)

1 Samuel 14:1~52

- 1 One day Jonathan son of Saul said to the young man bearing his armor, "Come, let's go over to the Philistine outpost on the other side." But he did not tell his father.
- 2 Saul was staying on the outskirts of Gibeah under a pomegranate tree in Migron. With him were about six hundred men,
- 3 among whom was Ahijah, who was wearing an ephod. He was a son of Ichabod's brother Ahitub son of Phinehas, the son of Eli, the LORD's priest in Shiloh. No one was aware that Jonathan had left.
- 4 On each side of the pass that Jonathan intended to cross to reach the Philistine outpost was a cliff; one was called Bozez, and the other Seneh.
- 5 One cliff stood to the north toward Micmash, the other to the south toward Geba.
- 6 Jonathan said to his young armor-bearer, "Come, let's go over to the outpost of those uncircumcised fellows. Perhaps the LORD will act in our behalf. Nothing can hinder the LORD from saving, whether by many or by few."
- 7 "Do all that you have in mind," his armor-bearer said. "Go ahead; I am with you heart and soul."
- 8 Jonathan said, "Come, then; we will cross over toward the men and let them see us.
- 9 If they say to us, 'Wait there until we come to you,' we will stay where we are and not go up to them.
- 10 But if they say, 'Come up to us,' we will climb up, because that will be our sign that the LORD has given them into our hands."
- 11 So both of them showed themselves to the Philistine outpost. "Look!" said the Philistines. "The Hebrews are crawling out of the holes they were hiding in."
- 12 The men of the outpost shouted to Jonathan and his armor-bearer, "Come up to us and we'll teach you a lesson." So Jonathan said to his armor-bearer, "Climb up after me; the LORD has given them into the hand of Israel."
- 13 Jonathan climbed up, using his hands and feet, with his armor-bearer right behind him. The Philistines fell before Jonathan, and his armor-bearer followed and killed behind him.

14 In that first attack Jonathan and his armor-bearer killed some twenty men in an area of about half an acre.

15 Then panic struck the whole army--those in the camp and field, and those in the outposts and raiding parties--and the ground shook. It was a panic sent by God.

1월 2일(토요일)

- 16 Saul's lookouts at Gibeah in Benjamin saw the army melting away in all directions.
- 17 Then Saul said to the men who were with him, "Mustering the forces and see who has left us." When they did, it was Jonathan and his armor-bearer who were not there.
- 18 Saul said to Ahijah, "Bring the ark of God." (At that time it was with the Israelites.)
- 19 While Saul was talking to the priest, the tumult in the Philistine camp increased more and more. So Saul said to the priest, "Withdraw your hand."
- 20 Then Saul and all his men assembled and went to the battle. They found the Philistines in total confusion, striking each other with their swords.
- 21 Those Hebrews who had previously been with the Philistines and had gone up with them to their camp went over to the Israelites who were with Saul and Jonathan.
- 22 When all the Israelites who had hidden in the hill country of Ephraim heard that the Philistines were on the run, they joined the battle in hot pursuit.
- 23 So the LORD rescued Israel that day, and the battle moved on beyond Beth Aven.

1월 3일(주일)

- 24 Now the men of Israel were in distress that day, because Saul had bound the people under an oath, saying, "Cursed be any man who eats food before evening comes, before I have avenged myself on my enemies!" So none of the troops tasted food.
- 25 The entire army entered the woods, and there was honey on the ground.
- 26 When they went into the woods, they saw the honey oozing out, yet no one put his hand to his mouth, because they feared the oath.
- 27 But Jonathan had not heard that his father had bound the people with the oath, so he

reached out the end of the staff that was in his hand and dipped it into the honeycomb. He raised his hand to his mouth, and his eyes brightened.

28 Then one of the soldiers told him, "Your father bound the army under a strict oath, saying, 'Cursed be any man who eats food today!' That is why the men are faint."

29 Jonathan said, "My father has made trouble for the country. See how my eyes brightened when I tasted a little of this honey."

30 How much better it would have been if the men had eaten today some of the plunder they took from their enemies. Would not the slaughter of the Philistines have been even greater?"

31 That day, after the Israelites had struck down the Philistines from Micmash to Aijalon, they were exhausted.

32 They pounced on the plunder and, taking sheep, cattle and calves, they butchered them on the ground and ate them, together with the blood.

33 Then someone said to Saul, "Look, the men are sinning against the LORD by eating meat that has blood in it." "You have broken faith," he said. "Roll a large stone over here at once."

34 Then he said, "Go out among the men and tell them, 'Each of you bring me your cattle and sheep, and slaughter them here and eat them. Do not sin against the LORD by eating meat with blood still in it.' " So everyone brought his ox that night and slaughtered it there.

35 Then Saul built an altar to the LORD; it was the first time he had done this.

1월 4일(월요일)

36 Saul said, "Let us go down after the Philistines by night and plunder them till dawn, and let us not leave one of them alive." "Do whatever seems best to you," they replied. But the priest said, "Let us inquire of God here."

37 So Saul asked God, "Shall I go down after the Philistines? Will you give them into Israel's hand?" But God did not answer him that day.

38 Saul therefore said, "Come here, all you who are leaders of the army, and let us find out what sin has been committed today."

39 As surely as the LORD who rescues Israel lives, even if it lies with my son Jonathan, he must die." But not one of the men said a word.

40 Saul then said to all the Israelites, "You stand over there; I and Jonathan my son will stand over here." "Do what seems best to you," the men replied.

41 Then Saul prayed to the LORD, the God of Israel, "Give me the right answer." And Jonathan and Saul were taken by lot, and the men were cleared.

42 Saul said, "Cast the lot between me and Jonathan my son." And Jonathan was taken.

43 Then Saul said to Jonathan, "Tell me what you have done." So Jonathan told him, "I merely tasted a little honey with the end of my staff. And now must I die?"

44 Saul said, "May God deal with me, be it ever so severely, if you do not die, Jonathan."

45 But the men said to Saul, "Should Jonathan die--he who has brought about this great deliverance in Israel? Never! As surely as the LORD lives, not a hair of his head will fall to the ground, for he did this today with God's help." So the men rescued Jonathan, and he was not put to death.

46 Then Saul stopped pursuing the Philistines, and they withdrew to their own land.

47 After Saul had assumed rule over Israel, he fought against their enemies on every side: Moab, the Ammonites, Edom, the kings of Zobah, and the Philistines. Wherever he turned, he inflicted punishment on them.

48 He fought valiantly and defeated the Amalekites, delivering Israel from the hands of those who had plundered them.

49 Saul's sons were Jonathan, Ishvi and Malki-Shua. The name of his older daughter was Merab, and that of the younger was Michal.

50 His wife's name was Ahinoam daughter of Ahimaaz. The name of the commander of Saul's army was Abner son of Ner, and Ner was Saul's uncle.

51 Saul's father Kish and Abner's father Ner were sons of Abiel.

52 All the days of Saul there was bitter war with the Philistines, and whenever Saul saw a mighty or brave man, he took him into his service.

1월 5일(화요일)

1 Samuel 15:1~35

- 1 Samuel said to Saul, "I am the one the LORD sent to anoint you king over his people Israel; so listen now to the message from the LORD.
- 2 This is what the LORD Almighty says: 'I will punish the Amalekites for what they did to Israel when they waylaid them as they came up from Egypt.
- 3 Now go, attack the Amalekites and totally destroy everything that belongs to them. Do not spare them; put to death men and women, children and infants, cattle and sheep, camels and donkeys.'"
- 4 So Saul summoned the men and mustered them at Telaim--two hundred thousand foot soldiers and ten thousand men from Judah.
- 5 Saul went to the city of Amalek and set an ambush in the ravine.
- 6 Then he said to the Kenites, "Go away, leave the Amalekites so that I do not destroy you along with them; for you showed kindness to all the Israelites when they came up out of Egypt." So the Kenites moved away from the Amalekites.
- 7 Then Saul attacked the Amalekites all the way from Havilah to Shur, to the east of Egypt.
- 8 He took Agag king of the Amalekites alive, and all his people he totally destroyed with the sword.
- 9 But Saul and the army spared Agag and the best of the sheep and cattle, the fat calves and lambs--everything that was good. These they were unwilling to destroy completely, but everything that was despised and weak they totally destroyed.

1월 6일(수요일)

- 10 Then the word of the LORD came to Samuel:
- 11 "I am grieved that I have made Saul king, because he has turned away from me and has not carried out my instructions." Samuel was troubled, and he cried out to the LORD all that night.
- 12 Early in the morning Samuel got up and went to meet Saul, but he was told, "Saul has gone to Carmel. There he has set up a monument in his own honor and has turned and gone on down to Gilgal."
- 13 When Samuel reached him, Saul said, "The LORD bless you! I have carried out the

LORD's instructions."

- 14 But Samuel said, "What then is this bleating of sheep in my ears? What is this lowing of cattle that I hear?"
- 15 Saul answered, "The soldiers brought them from the Amalekites; they spared the best of the sheep and cattle to sacrifice to the LORD your God, but we totally destroyed the rest."
- 16 "Stop!" Samuel said to Saul. "Let me tell you what the LORD said to me last night." "Tell me," Saul replied.
- 17 Samuel said, "Although you were once small in your own eyes, did you not become the head of the tribes of Israel? The LORD anointed you king over Israel.
- 18 And he sent you on a mission, saying, 'Go and completely destroy those wicked people, the Amalekites; make war on them until you have wiped them out.'
- 19 Why did you not obey the LORD? Why did you pounce on the plunder and do evil in the eyes of the LORD?"
- 20 "But I did obey the LORD," Saul said. "I went on the mission the LORD assigned me. I completely destroyed the Amalekites and brought back Agag their king.
- 21 The soldiers took sheep and cattle from the plunder, the best of what was devoted to God, in order to sacrifice them to the LORD your God at Gilgal."
- 22 But Samuel replied: "Does the LORD delight in burnt offerings and sacrifices as much as in obeying the voice of the LORD? To obey is better than sacrifice, and to heed is better than the fat of rams.
- 23 For rebellion is like the sin of divination, and arrogance like the evil of idolatry. Because you have rejected the word of the LORD, he has rejected you as king."

1월 7일(목요일)

- 24 Then Saul said to Samuel, "I have sinned. I violated the LORD's command and your instructions. I was afraid of the people and so I gave in to them.
- 25 Now I beg you, forgive my sin and come back with me, so that I may worship the LORD."
- 26 But Samuel said to him, "I will not go back with you. You have rejected the word of the LORD, and the LORD has rejected you as king over Israel!"

- 27 As Samuel turned to leave, Saul caught hold of the hem of his robe, and it tore.
- 28 Samuel said to him, "The LORD has torn the kingdom of Israel from you today and has given it to one of your neighbors--to one better than you.
- 29 He who is the Glory of Israel does not lie or change his mind; for he is not a man, that he should change his mind."
- 30 Saul replied, "I have sinned. But please honor me before the elders of my people and before Israel; come back with me, so that I may worship the LORD your God."
- 31 So Samuel went back with Saul, and Saul worshiped the LORD.
- 32 Then Samuel said, "Bring me Agag king of the Amalekites." Agag came to him confidently, thinking, "Surely the bitterness of death is past."
- 33 But Samuel said, "As your sword has made women childless, so will your mother be childless among women." And Samuel put Agag to death before the LORD at Gilgal.
- 34 Then Samuel left for Ramah, but Saul went up to his home in Gibeath of Saul.
- 35 Until the day Samuel died, he did not go to see Saul again, though Samuel mourned for him. And the LORD was grieved that he had made Saul king over Israel.

1월 8일(금요일)

1 Samuel 16:1~23

- 1 The LORD said to Samuel, "How long will you mourn for Saul, since I have rejected him as king over Israel? Fill your horn with oil and be on your way; I am sending you to Jesse of Bethlehem. I have chosen one of his sons to be king."
- 2 But Samuel said, "How can I go? Saul will hear about it and kill me." The LORD said, "Take a heifer with you and say, 'I have come to sacrifice to the LORD.'"
- 3 Invite Jesse to the sacrifice, and I will show you what to do. You are to anoint for me the one I indicate."
- 4 Samuel did what the LORD said. When he arrived at Bethlehem, the elders of the town trembled when they met him. They asked, "Do you come in peace?"
- 5 Samuel replied, "Yes, in peace; I have come to sacrifice to the LORD. Consecrate yourselves and come to the sacrifice with me." Then he consecrated Jesse and his

sons and invited them to the sacrifice.

- 6 When they arrived, Samuel saw Eliab and thought, "Surely the LORD's anointed stands here before the LORD."
- 7 But the LORD said to Samuel, "Do not consider his appearance or his height, for I have rejected him. The LORD does not look at the things man looks at. Man looks at the outward appearance, but the LORD looks at the heart."
- 8 Then Jesse called Abinadab and had him pass in front of Samuel. But Samuel said, "The LORD has not chosen this one either."
- 9 Jesse then had Shammah pass by, but Samuel said, "Nor has the LORD chosen this one."
- 10 Jesse had seven of his sons pass before Samuel, but Samuel said to him, "The LORD has not chosen these."
- 11 So he asked Jesse, "Are these all the sons you have?" "There is still the youngest," Jesse answered, "but he is tending the sheep." Samuel said, "Send for him; we will not sit down until he arrives."
- 12 So he sent and had him brought in. He was ruddy, with a fine appearance and handsome features. Then the LORD said, "Rise and anoint him; he is the one."
- 13 So Samuel took the horn of oil and anointed him in the presence of his brothers, and from that day on the Spirit of the LORD came upon David in power. Samuel then went to Ramah.

1월 9일(토요일)

- 14 Now the Spirit of the LORD had departed from Saul, and an evil spirit from the LORD tormented him.
- 15 Saul's attendants said to him, "See, an evil spirit from God is tormenting you."
- 16 Let our lord command his servants here to search for someone who can play the harp. He will play when the evil spirit from God comes upon you, and you will feel better."
- 17 So Saul said to his attendants, "Find someone who plays well and bring him to me."
- 18 One of the servants answered, "I have seen a son of Jesse of Bethlehem who knows how to play the harp. He is a brave man and a warrior. He speaks well and is a fine-looking man. And the LORD is with him."
- 19 Then Saul sent messengers to Jesse and

said, "Send me your son David, who is with the sheep."

20 So Jesse took a donkey loaded with bread, a skin of wine and a young goat and sent them with his son David to Saul.

21 David came to Saul and entered his service. Saul liked him very much, and David became one of his armor-bearers.

22 Then Saul sent word to Jesse, saying, "Allow David to remain in my service, for I am pleased with him."

23 Whenever the spirit from God came upon Saul, David would take his harp and play. Then relief would come to Saul; he would feel better, and the evil spirit would leave him.

1월 10일(주일)

1 Samuel 17:1~58

1 Now the Philistines gathered their forces for war and assembled at Socoh in Judah. They pitched camp at Ephes Dammim, between Socoh and Azekah.

2 Saul and the Israelites assembled and camped in the Valley of Elah and drew up their battle line to meet the Philistines.

3 The Philistines occupied one hill and the Israelites another, with the valley between them.

4 A champion named Goliath, who was from Gath, came out of the Philistine camp. He was over nine feet tall.

5 He had a bronze helmet on his head and wore a coat of scale armor of bronze weighing five thousand shekels;

6 on his legs he wore bronze greaves, and a bronze javelin was slung on his back.

7 His spear shaft was like a weaver's rod, and its iron point weighed six hundred shekels. His shield bearer went ahead of him.

8 Goliath stood and shouted to the ranks of Israel, "Why do you come out and line up for battle? Am I not a Philistine, and are you not the servants of Saul? Choose a man and have him come down to me.

9 If he is able to fight and kill me, we will become your subjects; but if I overcome him and kill him, you will become our subjects and serve us."

10 Then the Philistine said, "This day I defy the ranks of Israel! Give me a man and let us fight each other."

11 On hearing the Philistine's words, Saul and

all the Israelites were dismayed and terrified.

1월 11일(월요일)

12 Now David was the son of an Ephrathite named Jesse, who was from Bethlehem in Judah. Jesse had eight sons, and in Saul's time he was old and well advanced in years.

13 Jesse's three oldest sons had followed Saul to the war: The firstborn was Eliab; the second, Abinadab; and the third, Shammah.

14 David was the youngest. The three oldest followed Saul,

15 but David went back and forth from Saul to tend his father's sheep at Bethlehem.

16 For forty days the Philistine came forward every morning and evening and took his stand.

17 Now Jesse said to his son David, "Take this ephah of roasted grain and these ten loaves of bread for your brothers and hurry to their camp.

18 Take along these ten cheeses to the commander of their unit. See how your brothers are and bring back some assurance from them.

19 They are with Saul and all the men of Israel in the Valley of Elah, fighting against the Philistines."

20 Early in the morning David left the flock with a shepherd, loaded up and set out, as Jesse had directed. He reached the camp as the army was going out to its battle positions, shouting the war cry.

21 Israel and the Philistines were drawing up their lines facing each other.

22 David left his things with the keeper of supplies, ran to the battle lines and greeted his brothers.

23 As he was talking with them, Goliath, the Philistine champion from Gath, stepped out from his lines and shouted his usual defiance, and David heard it.

24 When the Israelites saw the man, they all ran from him in great fear.

25 Now the Israelites had been saying, "Do you see how this man keeps coming out? He comes out to defy Israel. The king will give great wealth to the man who kills him. He will also give him his daughter in marriage and will exempt his father's family from taxes in Israel."

26 David asked the men standing near him, "What will be done for the man who kills this

Philistine and removes this disgrace from Israel? Who is this uncircumcised Philistine that he should defy the armies of the living God?"

- 27 They repeated to him what they had been saying and told him, "This is what will be done for the man who kills him."

1월 12일(화요일)

28 When Eliab, David's oldest brother, heard him speaking with the men, he burned with anger at him and asked, "Why have you come down here? And with whom did you leave those few sheep in the desert? I know how conceited you are and how wicked your heart is; you came down only to watch the battle."

29 "Now what have I done?" said David. "Can't I even speak?"

30 He then turned away to someone else and brought up the same matter, and the men answered him as before.

31 What David said was overheard and reported to Saul, and Saul sent for him.

32 David said to Saul, "Let no one lose heart on account of this Philistine; your servant will go and fight him."

33 Saul replied, "You are not able to go out against this Philistine and fight him; you are only a boy, and he has been a fighting man from his youth."

34 But David said to Saul, "Your servant has been keeping his father's sheep. When a lion or a bear came and carried off a sheep from the flock,

35 I went after it, struck it and rescued the sheep from its mouth. When it turned on me, I seized it by its hair, struck it and killed it.

36 Your servant has killed both the lion and the bear; this uncircumcised Philistine will be like one of them, because he has defied the armies of the living God.

37 The LORD who delivered me from the paw of the lion and the paw of the bear will deliver me from the hand of this Philistine." Saul said to David, "Go, and the LORD be with you."

38 Then Saul dressed David in his own tunic. He put a coat of armor on him and a bronze helmet on his head.

39 David fastened on his sword over the tunic and tried walking around, because he was

not used to them. "I cannot go in these," he said to Saul, "because I am not used to them." So he took them off.

40 Then he took his staff in his hand, chose five smooth stones from the stream, put them in the pouch of his shepherd's bag and, with his sling in his hand, approached the Philistine.

1월 13일(수요일)

41 Meanwhile, the Philistine, with his shield bearer in front of him, kept coming closer to David.

42 He looked David over and saw that he was only a boy, ruddy and handsome, and he despised him.

43 He said to David, "Am I a dog, that you come at me with sticks?" And the Philistine cursed David by his gods.

44 "Come here," he said, "and I'll give your flesh to the birds of the air and the beasts of the field!"

45 David said to the Philistine, "You come against me with sword and spear and javelin, but I come against you in the name of the LORD Almighty, the God of the armies of Israel, whom you have defied.

46 This day the LORD will hand you over to me, and I'll strike you down and cut off your head. Today I will give the carcasses of the Philistine army to the birds of the air and the beasts of the earth, and the whole world will know that there is a God in Israel.

47 All those gathered here will know that it is not by sword or spear that the LORD saves; for the battle is the LORD's, and he will give all of you into our hands."

48 As the Philistine moved closer to attack him, David ran quickly toward the battle line to meet him.

49 Reaching into his bag and taking out a stone, he slung it and struck the Philistine on the forehead. The stone sank into his forehead, and he fell facedown on the ground.

50 So David triumphed over the Philistine with a sling and a stone; without a sword in his hand he struck down the Philistine and killed him.

51 David ran and stood over him. He took hold of the Philistine's sword and drew it from the scabbard. After he killed him, he cut off his head with the sword. When the 52 Philistines saw that their hero was dead,

they turned and ran.

52 Then the men of Israel and Judah surged forward with a shout and pursued the Philistines to the entrance of Gath and to the gates of Ekron. Their dead were strewn along the Shaaraim road to Gath and Ekron.

53 When the Israelites returned from chasing the Philistines, they plundered their camp.

54 David took the Philistine's head and brought it to Jerusalem, and he put the Philistine's weapons in his own tent.

1월 14일(목요일)

55 As Saul watched David going out to meet the Philistine, he said to Abner, commander of the army, "Abner, whose son is that young man?" Abner replied, "As surely as you live, O king, I don't know."

56 The king said, "Find out whose son this young man is."

57 As soon as David returned from killing the Philistine, Abner took him and brought him before Saul, with David still holding the Philistine's head.

58 "Whose son are you, young man?" Saul asked him. David said, "I am the son of your servant Jesse of Bethlehem."

1 Samuel 18:1~30

1 After David had finished talking with Saul, Jonathan became one in spirit with David, and he loved him as himself.

2 From that day Saul kept David with him and did not let him return to his father's house.

3 And Jonathan made a covenant with David because he loved him as himself.

4 Jonathan took off the robe he was wearing and gave it to David, along with his tunic, and even his sword, his bow and his belt.

5 Whatever Saul sent him to do, David did it so successfully that Saul gave him a high rank in the army. This pleased all the people, and Saul's officers as well.

1월 15일(금요일)

6 When the men were returning home after David had killed the Philistine, the women came out from all the towns of Israel to meet King Saul with singing and dancing, with joyful songs and with tambourines and

lutes.

7 As they danced, they sang: "Saul has slain his thousands, and David his tens of thousands."

8 Saul was very angry; this refrain galled him. "They have credited David with tens of thousands," he thought, "but me with only thousands. What more can he get but the kingdom?"

9 And from that time on Saul kept a jealous eye on David.

10 The next day an evil spirit from God came forcefully upon Saul. He was prophesying in his house, while David was playing the harp, as he usually did. Saul had a spear in his hand

11 and he hurled it, saying to himself, "I'll pin David to the wall." But David eluded him twice.

12 Saul was afraid of David, because the LORD was with David but had left Saul.

13 So he sent David away from him and gave him command over a thousand men, and David led the troops in their campaigns.

14 In everything he did he had great success, because the LORD was with him.

15 When Saul saw how successful he was, he was afraid of him.

16 But all Israel and Judah loved David, because he led them in their campaigns.

1월 16일(토요일)

17 Saul said to David, "Here is my older daughter Merab. I will give her to you in marriage; only serve me bravely and fight the battles of the LORD." For Saul said to himself, "I will not raise a hand against him. Let the Philistines do that!"

18 But David said to Saul, "Who am I, and what is my family or my father's clan in Israel, that I should become the king's son-in-law?"

19 So when the time came for Merab, Saul's daughter, to be given to David, she was given in marriage to Adriel of Meholah.

20 Now Saul's daughter Michal was in love with David, and when they told Saul about it, he was pleased.

21 "I will give her to him," he thought, "so that she may be a snare to him and so that the hand of the Philistines may be against him." So Saul said to David, "Now you have a second opportunity to become my son-in-law."

22 Then Saul ordered his attendants: "Speak to David privately and say, 'Look, the king is pleased with you, and his attendants all like you; now become his son-in-law.'"

23 They repeated these words to David. But David said, "Do you think it is a small matter to become the king's son-in-law? I'm only a poor man and little known."

24 When Saul's servants told him what David had said,

25 Saul replied, "Say to David, 'The king wants no other price for the bride than a hundred Philistine foreskins, to take revenge on his enemies.' " Saul's plan was to have David fall by the hands of the Philistines.

26 When the attendants told David these things, he was pleased to become the king's son-in-law. So before the allotted time elapsed,

27 David and his men went out and killed two hundred Philistines. He brought their foreskins and presented the full number to the king so that he might become the king's son-in-law. Then Saul gave him his daughter Michal in marriage.

28 When Saul realized that the LORD was with David and that his daughter Michal loved David,

29 Saul became still more afraid of him, and he remained his enemy the rest of his days.

30 The Philistine commanders continued to go out to battle, and as often as they did, David met with more success than the rest of Saul's officers, and his name became well known.

1월 17일(주일)

1 Samuel 19:1~24

1 Saul told his son Jonathan and all the attendants to kill David. But Jonathan was very fond of David

2 and warned him, "My father Saul is looking for a chance to kill you. Be on your guard tomorrow morning; go into hiding and stay there.

3 I will go out and stand with my father in the field where you are. I'll speak to him about you and will tell you what I find out."

4 Jonathan spoke well of David to Saul his father and said to him, "Let not the king do wrong to his servant David; he has not wronged you, and what he has done has benefited you greatly.

5 He took his life in his hands when he killed the Philistine. The LORD won a great victory for all Israel, and you saw it and were glad. Why then would you do wrong to an innocent man like David by killing him for no reason?"

6 Saul listened to Jonathan and took this oath: "As surely as the LORD lives, David will not be put to death."

7 So Jonathan called David and told him the whole conversation. He brought him to Saul, and David was with Saul as before.

1월 18일(월요일)

8 Once more war broke out, and David went out and fought the Philistines. He struck them with such force that they fled before him.

9 But an evil spirit from the LORD came upon Saul as he was sitting in his house with his spear in his hand. While David was playing the harp,

10 Saul tried to pin him to the wall with his spear, but David eluded him as Saul drove the spear into the wall. That night David made good his escape.

11 Saul sent men to David's house to watch it and to kill him in the morning. But Michal, David's wife, warned him, "If you don't run for your life tonight, tomorrow you'll be killed."

12 So Michal let David down through a window, and he fled and escaped.

13 Then Michal took an idol and laid it on the bed, covering it with a garment and putting some goats' hair at the head.

14 When Saul sent the men to capture David, Michal said, "He is ill."

15 Then Saul sent the men back to see David and told them, "Bring him up to me in his bed so that I may kill him."

16 But when the men entered, there was the idol in the bed, and at the head was some goats' hair.

17 Saul said to Michal, "Why did you deceive me like this and send my enemy away so that he escaped?" Michal told him, "He said to me, 'Let me get away. Why should I kill you?' "

18 When David had fled and made his escape, he went to Samuel at Ramah and told him all that Saul had done to him. Then he and Samuel went to Naioth and stayed there.

19 Word came to Saul: "David is in Naioth at Ramah";
 20 so he sent men to capture him. But when they saw a group of prophets prophesying, with Samuel standing there as their leader, the Spirit of God came upon Saul's men and they also prophesied.
 21 Saul was told about it, and he sent more men, and they prophesied too. Saul sent men a third time, and they also prophesied.
 22 Finally, he himself left for Ramah and went to the great cistern at Secu. And he asked, "Where are Samuel and David?" "Over in Naioth at Ramah," they said.
 23 So Saul went to Naioth at Ramah. But the Spirit of God came even upon him, and he walked along prophesying until he came to Naioth.
 24 He stripped off his robes and also prophesied in Samuel's presence. He lay that way all that day and night. This is why people say, "Is Saul also among the prophets?"

1월 19일(화요일)

1 Samuel 20:1~42

1 Then David fled from Naioth at Ramah and went to Jonathan and asked, "What have I done? What is my crime? How have I wronged your father, that he is trying to take my life?"
 2 "Never!" Jonathan replied. "You are not going to die! Look, my father doesn't do anything, great or small, without confiding in me. Why would he hide this from me? It's not so!"
 3 But David took an oath and said, "Your father knows very well that I have found favor in your eyes, and he has said to himself, 'Jonathan must not know this or he will be grieved.' Yet as surely as the LORD lives and as you live, there is only a step between me and death."
 4 Jonathan said to David, "Whatever you want me to do, I'll do for you."
 5 So David said, "Look, tomorrow is the New Moon festival, and I am supposed to dine with the king; but let me go and hide in the field until the evening of the day after tomorrow.
 6 If your father misses me at all, tell him, 'David earnestly asked my permission to hurry to Bethlehem, his hometown,

because an annual sacrifice is being made there for his whole clan.'

7 If he says, 'Very well,' then your servant is safe. But if he loses his temper, you can be sure that he is determined to harm me.
 8 As for you, show kindness to your servant, for you have brought him into a covenant with you before the LORD. If I am guilty, then kill me yourself! Why hand me over to your father?"
 9 "Never!" Jonathan said. "If I had the least inkling that my father was determined to harm you, wouldn't I tell you?"
 10 David asked, "Who will tell me if your father answers you harshly?"
 11 "Come," Jonathan said, "let's go out into the field." So they went there together.

1월 20일(수요일)

12 Then Jonathan said to David: "By the LORD, the God of Israel, I will surely sound out my father by this time the day after tomorrow! If he is favorably disposed toward you, will I not send you word and let you know?"
 13 But if my father is inclined to harm you, may the LORD deal with me, be it ever so severely, if I do not let you know and send you away safely. May the LORD be with you as he has been with my father.
 14 But show me unfailing kindness like that of the LORD as long as I live, so that I may not be killed,
 15 and do not ever cut off your kindness from my family--not even when the LORD has cut off every one of David's enemies from the face of the earth."
 16 So Jonathan made a covenant with the house of David, saying, "May the LORD call David's enemies to account."
 17 And Jonathan had David reaffirm his oath out of love for him, because he loved him as he loved himself.
 18 Then Jonathan said to David: "Tomorrow is the New Moon festival. You will be missed, because your seat will be empty.
 19 The day after tomorrow, toward evening, go to the place where you hid when this trouble began, and wait by the stone Ezel.
 20 I will shoot three arrows to the side of it, as though I were shooting at a target.
 21 Then I will send a boy and say, 'Go, find the arrows.' If I say to him, 'Look, the arrows are on this side of you; bring them here,' then

come, because, as surely as the LORD lives, you are safe; there is no danger.

- 22 But if I say to the boy, 'Look, the arrows are beyond you,' then you must go, because the LORD has sent you away.
23 And about the matter you and I discussed--remember, the LORD is witness between you and me forever."

1월 21일(목요일)

- 24 So David hid in the field, and when the New Moon festival came, the king sat down to eat.
25 He sat in his customary place by the wall, opposite Jonathan, and Abner sat next to Saul, but David's place was empty.
26 Saul said nothing that day, for he thought, "Something must have happened to David to make him ceremonially unclean--surely he is unclean."
27 But the next day, the second day of the month, David's place was empty again. Then Saul said to his son Jonathan, "Why hasn't the son of Jesse come to the meal, either yesterday or today?"
28 Jonathan answered, "David earnestly asked me for permission to go to Bethlehem."
29 He said, 'Let me go, because our family is observing a sacrifice in the town and my brother has ordered me to be there. If I have found favor in your eyes, let me get away to see my brothers.' That is why he has not come to the king's table."
30 Saul's anger flared up at Jonathan and he said to him, "You son of a perverse and rebellious woman! Don't I know that you have sided with the son of Jesse to your own shame and to the shame of the mother who bore you?"
31 As long as the son of Jesse lives on this earth, neither you nor your kingdom will be established. Now send and bring him to me, for he must die!"
32 "Why should he be put to death? What has he done?" Jonathan asked his father.
33 But Saul hurled his spear at him to kill him. Then Jonathan knew that his father intended to kill David.
34 Jonathan got up from the table in fierce anger; on that second day of the month he did not eat, because he was grieved at his father's shameful treatment of David.

1월 22일(금요일)

- 35 In the morning Jonathan went out to the field for his meeting with David. He had a small boy with him,
36 and he said to the boy, "Run and find the arrows I shoot." As the boy ran, he shot an arrow beyond him.
37 When the boy came to the place where Jonathan's arrow had fallen, Jonathan called out after him, "Isn't the arrow beyond you?"
38 Then he shouted, "Hurry! Go quickly! Don't stop!" The boy picked up the arrow and returned to his master.
39 (The boy knew nothing of all this; only Jonathan and David knew.)
40 Then Jonathan gave his weapons to the boy and said, "Go, carry them back to town."
41 After the boy had gone, David got up from the south side of the stone and bowed down before Jonathan three times, with his face to the ground. Then they kissed each other and wept together--but David wept the most.
42 Jonathan said to David, "Go in peace, for we have sworn friendship with each other in the name of the LORD, saying, 'The LORD is witness between you and me, and between your descendants and my descendants forever.' " Then David left, and Jonathan went back to the town.

1월 23일(토요일)

1 Samuel 21:1~15

- 1 David went to Nob, to Ahimelech the priest. Ahimelech trembled when he met him, and asked, "Why are you alone? Why is no one with you?"
2 David answered Ahimelech the priest, "The king charged me with a certain matter and said to me, 'No one is to know anything about your mission and your instructions.' As for my men, I have told them to meet me at a certain place."
3 Now then, what do you have on hand? Give me five loaves of bread, or whatever you can find."
4 But the priest answered David, "I don't have any ordinary bread on hand; however, there is some consecrated bread here--provided the men have kept themselves from women."
5 David replied, "Indeed women have been kept from us, as usual whenever I set out. The men's things are holy even on missions

that are not holy. How much more so today!"

6 So the priest gave him the consecrated bread, since there was no bread there except the bread of the Presence that had been removed from before the LORD and replaced by hot bread on the day it was taken away.

7 Now one of Saul's servants was there that day, detained before the LORD; he was Doeg the Edomite, Saul's head shepherd.

8 David asked Ahimelech, "Don't you have a spear or a sword here? I haven't brought my sword or any other weapon, because the king's business was urgent."

9 The priest replied, "The sword of Goliath the Philistine, whom you killed in the Valley of Elah, is here; it is wrapped in a cloth behind the ephod. If you want it, take it; there is no sword here but that one." David said, "There is none like it; give it to me."

10 That day David fled from Saul and went to Achish king of Gath.

11 But the servants of Achish said to him, "Isn't this David, the king of the land? Isn't he the one they sing about in their dances: 'Saul has slain his thousands, and David his tens of thousands?'"

12 David took these words to heart and was very much afraid of Achish king of Gath.

13 So he pretended to be insane in their presence; and while he was in their hands he acted like a madman, making marks on the doors of the gate and letting saliva run down his beard.

14 Achish said to his servants, "Look at the man! He is insane! Why bring him to me?"

15 Am I so short of madmen that you have to bring this fellow here to carry on like this in front of me? Must this man come into my house?"

1월 24일(주일)

1 Samuel 22:1~23

1 David left Gath and escaped to the cave of Adullam. When his brothers and his father's household heard about it, they went down to him there.

2 All those who were in distress or in debt or discontented gathered around him, and he became their leader. About four hundred men were with him.

3 From there David went to Mizpah in Moab

and said to the king of Moab, "Would you let my father and mother come and stay with you until I learn what God will do for me?"

4 So he left them with the king of Moab, and they stayed with him as long as David was in the stronghold.

5 But the prophet Gad said to David, "Do not stay in the stronghold. Go into the land of Judah." So David left and went to the forest of Hereth.

6 Now Saul heard that David and his men had been discovered. And Saul, spear in hand, was seated under the tamarisk tree on the hill at Gibeah, with all his officials standing around him.

7 Saul said to them, "Listen, men of Benjamin! Will the son of Jesse give all of you fields and vineyards? Will he make all of you commanders of thousands and commanders of hundreds?"

8 Is that why you have all conspired against me? No one tells me when my son makes a covenant with the son of Jesse. None of you is concerned about me or tells me that my son has incited my servant to lie in wait for me, as he does today."

9 But Doeg the Edomite, who was standing with Saul's officials, said, "I saw the son of Jesse come to Ahimelech son of Ahitub at Nob."

10 Ahimelech inquired of the LORD for him; he also gave him provisions and the sword of Goliath the Philistine."

1월 25일(월요일)

11 Then the king sent for the priest Ahimelech son of Ahitub and his father's whole family, who were the priests at Nob, and they all came to the king.

12 Saul said, "Listen now, son of Ahitub." "Yes, my lord," he answered.

13 Saul said to him, "Why have you conspired against me, you and the son of Jesse, giving him bread and a sword and inquiring of God for him, so that he has rebelled against me and lies in wait for me, as he does today?"

14 Ahimelech answered the king, "Who of all your servants is as loyal as David, the king's son-in-law, captain of your bodyguard and highly respected in your household?"

15 Was that day the first time I inquired of God for him? Of course not! Let not the king accuse your servant or any of his father's

family, for your servant knows nothing at all about this whole affair."

16 But the king said, "You will surely die, Ahimelech, you and your father's whole family."

17 Then the king ordered the guards at his side: "Turn and kill the priests of the LORD, because they too have sided with David. They knew he was fleeing, yet they did not tell me." But the king's officials were not willing to raise a hand to strike the priests of the LORD.

18 The king then ordered Doeg, "You turn and strike down the priests." So Doeg the Edomite turned and struck them down. That day he killed eighty-five men who wore the linen ephod.

19 He also put to the sword Nob, the town of the priests, with its men and women, its children and infants, and its cattle, donkeys and sheep.

20 But Abiathar, a son of Ahimelech son of Ahitub, escaped and fled to join David.

21 He told David that Saul had killed the priests of the LORD.

22 Then David said to Abiathar: "That day, when Doeg the Edomite was there, I knew he would be sure to tell Saul. I am responsible for the death of your father's whole family.

23 Stay with me; don't be afraid; the man who is seeking your life is seeking mine also. You will be safe with me."

1월 26일(화요일)

1 Samuel 23:1~29

1 When David was told, "Look, the Philistines are fighting against Keilah and are looting the threshing floors,"

2 he inquired of the LORD, saying, "Shall I go and attack these Philistines?" The LORD answered him, "Go, attack the Philistines and save Keilah."

3 But David's men said to him, "Here in Judah we are afraid. How much more, then, if we go to Keilah against the Philistine forces!"

4 Once again David inquired of the LORD, and the LORD answered him, "Go down to Keilah, for I am going to give the Philistines into your hand."

5 So David and his men went to Keilah, fought the Philistines and carried off their livestock. He inflicted heavy losses on the

Philistines and saved the people of Keilah.

6 (Now Abiathar son of Ahimelech had brought the ephod down with him when he fled to David at Keilah.)

7 Saul was told that David had gone to Keilah, and he said, "God has handed him over to me, for David has imprisoned himself by entering a town with gates and bars."

8 And Saul called up all his forces for battle, to go down to Keilah to besiege David and his men.

9 When David learned that Saul was plotting against him, he said to Abiathar the priest, "Bring the ephod."

10 David said, "O LORD, God of Israel, your servant has heard definitely that Saul plans to come to Keilah and destroy the town on account of me.

11 Will the citizens of Keilah surrender me to him? Will Saul come down, as your servant has heard? O LORD, God of Israel, tell your servant." And the LORD said, "He will."

12 Again David asked, "Will the citizens of Keilah surrender me and my men to Saul?" And the LORD said, "They will."

13 So David and his men, about six hundred in number, left Keilah and kept moving from place to place. When Saul was told that David had escaped from Keilah, he did not go there.

14 David stayed in the desert strongholds and in the hills of the Desert of Ziph. Day after day Saul searched for him, but God did not give David into his hands.

1월 27일(수요일)

15 While David was at Horesh in the Desert of Ziph, he learned that Saul had come out to take his life.

16 And Saul's son Jonathan went to David at Horesh and helped him find strength in God.

17 "Don't be afraid," he said. "My father Saul will not lay a hand on you. You will be king over Israel, and I will be second to you. Even my father Saul knows this."

18 The two of them made a covenant before the LORD. Then Jonathan went home, but David remained at Horesh.

19 The Ziphites went up to Saul at Gibeah and said, "Is not David hiding among us in the strongholds at Horesh, on the hill of Hakilah, south of Jeshimon?"

20 Now, O king, come down whenever it

pleases you to do so, and we will be responsible for handing him over to the king."

- 21 Saul replied, "The LORD bless you for your concern for me.
- 22 Go and make further preparation. Find out where David usually goes and who has seen him there. They tell me he is very crafty.
- 23 Find out about all the hiding places he uses and come back to me with definite information. Then I will go with you; if he is in the area, I will track him down among all the clans of Judah."
- 24 So they set out and went to Ziph ahead of Saul. Now David and his men were in the Desert of Maon, in the Arabah south of Jeshimon.
- 25 Saul and his men began the search, and when David was told about it, he went down to the rock and stayed in the Desert of Maon. When Saul heard this, he went into the Desert of Maon in pursuit of David.
- 26 Saul was going along one side of the mountain, and David and his men were on the other side, hurrying to get away from Saul. As Saul and his forces were closing in on David and his men to capture them,
- 27 a messenger came to Saul, saying, "Come quickly! The Philistines are raiding the land."
- 28 Then Saul broke off his pursuit of David and went to meet the Philistines. That is why they call this place Sela Hammahlekoth.
- 29 And David went up from there and lived in the strongholds of En Gedi.

1월 28일(목요일)

1 Samuel 24:1~22

- 1 After Saul returned from pursuing the Philistines, he was told, "David is in the Desert of En Gedi."
- 2 So Saul took three thousand chosen men from all Israel and set out to look for David and his men near the Crags of the Wild Goats.
- 3 He came to the sheep pens along the way; a cave was there, and Saul went in to relieve himself. David and his men were far back in the cave.
- 4 The men said, "This is the day the LORD spoke of when he said to you, 'I will give your enemy into your hands for you to deal with as you wish.'" Then David crept up

unnoticed and cut off a corner of Saul's robe. Afterward, David was conscience-stricken for having cut off a corner of his robe.

- 6 He said to his men, "The LORD forbid that I should do such a thing to my master, the LORD's anointed, or lift my hand against him; for he is the anointed of the LORD."
- 7 With these words David rebuked his men and did not allow them to attack Saul. And Saul left the cave and went his way.

1월 29일(금요일)

- 8 Then David went out of the cave and called out to Saul, "My lord the king!" When Saul looked behind him, David bowed down and prostrated himself with his face to the ground.
- 9 He said to Saul, "Why do you listen when men say, 'David is bent on harming you'?"
- 10 This day you have seen with your own eyes how the LORD delivered you into my hands in the cave. Some urged me to kill you, but I spared you; I said, 'I will not lift my hand against my master, because he is the LORD's anointed.'
- 11 See, my father, look at this piece of your robe in my hand! I cut off the corner of your robe but did not kill you. Now understand and recognize that I am not guilty of wrongdoing or rebellion. I have not wronged you, but you are hunting me down to take my life.
- 12 May the LORD judge between you and me. And may the LORD avenge the wrongs you have done to me, but my hand will not touch you.
- 13 As the old saying goes, 'From evildoers come evil deeds,' so my hand will not touch you.
- 14 "Against whom has the king of Israel come out? Whom are you pursuing? A dead dog? A flea?"
- 15 May the LORD be our judge and decide between us. May he consider my cause and uphold it; may he vindicate me by delivering me from your hand."
- 16 When David finished saying this, Saul asked, "Is that your voice, David my son?" And he wept aloud.
- 17 "You are more righteous than I," he said. "You have treated me well, but I have treated you badly.
- 18 You have just now told me of the good you

did to me; the LORD delivered me into your hands, but you did not kill me.

- 19 When a man finds his enemy, does he let him get away unharmed? May the LORD reward you well for the way you treated me today.
- 20 I know that you will surely be king and that the kingdom of Israel will be established in your hands.
- 21 Now swear to me by the LORD that you will not cut off my descendants or wipe out my name from my father's family."
- 22 So David gave his oath to Saul. Then Saul returned home, but David and his men went up to the stronghold.

1월 30일(토요일)

1 Samuel 25:1~22

- 1 Now Samuel died, and all Israel assembled and mourned for him; and they buried him at his home in Ramah. Then David moved down into the Desert of Maon.
- 2 A certain man in Maon, who had property there at Carmel, was very wealthy. He had a thousand goats and three thousand sheep, which he was shearing in Carmel.
- 3 His name was Nabal and his wife's name was Abigail. She was an intelligent and beautiful woman, but her husband, a Calebite, was surly and mean in his dealings.
- 4 While David was in the desert, he heard that Nabal was shearing sheep.
- 5 So he sent ten young men and said to them, "Go up to Nabal at Carmel and greet him in my name.
- 6 Say to him: 'Long life to you! Good health to you and your household! And good health to all that is yours!'
- 7 "'Now I hear that it is sheep-shearing time. When your shepherds were with us, we did not mistreat them, and the whole time they were at Carmel nothing of theirs was missing.
- 8 Ask your own servants and they will tell you. Therefore be favorable toward my young men, since we come at a festive time. Please give your servants and your son David whatever you can find for them.'"

1월 31일(주일)

- 9 When David's men arrived, they gave Nabal

this message in David's name. Then they waited.

- 10 Nabal answered David's servants, "Who is this David? Who is this son of Jesse? Many servants are breaking away from their masters these days.
- 11 Why should I take my bread and water, and the meat I have slaughtered for my shearers, and give it to men coming from who knows where?"
- 12 David's men turned around and went back. When they arrived, they reported every word.
- 13 David said to his men, "Put on your swords!" So they put on their swords, and David put on his. About four hundred men went up with David, while two hundred stayed with the supplies.
- 14 One of the servants told Nabal's wife Abigail: "David sent messengers from the desert to give our master his greetings, but he hurled insults at them.
- 15 Yet these men were very good to us. They did not mistreat us, and the whole time we were out in the fields near them nothing was missing.
- 16 Night and day they were a wall around us all the time we were herding our sheep near them.
- 17 Now think it over and see what you can do, because disaster is hanging over our master and his whole household. He is such a wicked man that no one can talk to him."
- 18 Abigail lost no time. She took two hundred loaves of bread, two skins of wine, five dressed sheep, five seahs of roasted grain, a hundred cakes of raisins and two hundred cakes of pressed figs, and loaded them on donkeys.
- 19 Then she told her servants, "Go on ahead; I'll follow you." But she did not tell her husband Nabal.
- 20 As she came riding her donkey into a mountain ravine, there were David and his men descending toward her, and she met them.
- 21 David had just said, "It's been useless--all my watching over this fellow's property in the desert so that nothing of his was missing. He has paid me back evil for good.
- 22 May God deal with David, but it ever so severely, if by morning I leave alive one male of all who belong to him!"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20

충현의 만나 2016년 1월

Copyright© 2016 Choonghyun Church

발행인 | 김동하 · 편집인 | 권명옥 · 집필진 | 이범구 최영민 김완기 이기영 김용은

발행처 | 충현교회 교육훈련원(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27길 40(역삼동) 전화 552-8200)[비매품]